

칸트의 『유작』에서의 에테르 현존 증명의 배경에 관한 고찰

허 민
(서울대 철학과)

들어가며

1804년 2월, 칸트는 방대한 양의 원고들을 남겨둔 채 영면에 들었다. 특히 한 편의 저서에 대한 기획을 담고 있었던 원고묶음들은 오늘날 'Opus postumum' 혹은 '유작', '최후유고'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칸트의 유작을 담고 있었던 원고들이 겪어야 했던 운명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이 원고묶음들은 칸트 사후 50년 가까이 그 행방이 묘연했고, 1854년 재발견된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학술적인 판본이 등장하기까지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더 필요했다.¹⁾ 그리고 칸트 사후 한참 후에야 재발견된 이 원고묶음은 비판기의 사상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이 원고묶음에 대해 당혹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예컨대, Rohlf는 이 원고묶음들로부터 칸트의 명백한 정신적 쇠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가 하면²⁾,

1) 난삽하게 뒤섞인 상태로 발견되었던 원고 묶음을 칸트가 원고들에 남긴 분류 기호들, 종이와 잉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술 시기에 따라 재구성하려 시도한 Adickes의 *Kants Opus postumum*이 1920년에 출판되었고 몇 년 후 해당 원고묶음들이 Buchenau와 Lehmann 등의 주도로 칸트의 학술원판 전집 21권과 22권에 수록되었다. 해당 원고들의 편집 역사에 관해서는 김재호, 『칸트 『유작』 (Opus postumum)에 대한 이해와 오해 -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들의 편집 역사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75권, 2006, pp.330-340 참조.

2) “Opus Postumum으로 알려진 이 메모들은 칸트 생전에 완성되거나 출판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었고, 이 메모들의 중요성과 그것들의 앞선 작품들과의 관

Tuschling은 이 원고묶음들에 대해 칸트가 독단의 선잠에서 깨어나기 이전의 라이프니츠-볼프적인 철학으로 돌아갔다고 논평한다.³⁾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출판된 『칸트사전』 역시 이 원고에 대한 반응을 “충격”, “완강한 거부”로 요약한다.⁴⁾

그렇다면 이 원고의 무엇에 대해 학자들은 당혹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에테르의 현존에 대한 칸트의 증명이다. 즉, 칸트는 '이행[Übergang] 1-14'라는 분류기호가 기입된 원고에 이르러 에테르의 현존이 가능한 경험을 위해 필요함을 역설하며, 에테르의 현존을 선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그러나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신존재 증명을 비판하면서 어떤 객관의 현존에 대한 선험적 증명이 불가능함을 주장했었다.(*KrV*:B611)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대해, 칸트가 비판기의 주장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혐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김재호에 의해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칸트의 초월철학의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⁵⁾

그리고 본 논문은 이처럼 비판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낮은 주장인 것처럼 보이는 칸트의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계에 관해 학자들은 서로 불일치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 메모들이 1800년 경 비극적으로 급작스러워진, 오해의 여지가 없는 칸트의 정신적인 쇠퇴를 보여주는 것임은 명백하다.” Michael Rohlf, “Immanuel Kan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4 Edition), Edward N. Zalta(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4/entries/kant/>> 참조.

3) Burkhard Tuschling, “Apperception and Ether: On the Idea of a Transcendental Deduction of Matter in Kant's *Opus Postumum*”, *Kant's Transcendental Deductions - The Three Critiques and the Opus Postumum*, Eckart Förster(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p.207-209.

4) 『칸트사전』, 이신철 역, 사카베 메구미·아리후쿠 고가쿠 편집, 도서출판b, 2009, p.286.

5) 김재호, 『에테르(Äther) 현존(Existenz)에 관한 선험적 증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칸트 『유작』(Opus postumum) '이행'(Übergang 1-14)를 중심으로』, 『칸트연구』 제32권, 2013, pp.140-142.

단, 본 논문에선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논의하는 과정에 설령 비판기의 관점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칸트의 주장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칸트의 주장들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Opus postumum*에서의 칸트의 주장들에 대해 그것이 거부되어야 한다거나 승인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 판단에 따르면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대한 이런 논평들은 칸트의 주장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그 자체를 추구한 뒤에야 적절하게 주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의문, 즉 칸트가 에테르의 현존을 증명한 의도, 배경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즉, 칸트는 왜 에테르의 현존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에테르의 현존 증명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가? 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한편으로 에테르의 현존 증명은 *Opus postumum*의 전반부를 이루는 자연철학적인 문제들, 칸트 자신은 ‘이행’이라고 부르는 문제들과 결부된 자연철학적 논의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 이후 급작스럽게 등장하는 논의들로부터, 즉 ‘어떻게 선험적 종합판단은 가능한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들을 근거로 에테르의 현존 증명의 배경을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비판철학적인 문제들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는 본 논문에서 에테르의 현존 증명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문제들, 특히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 관한 논의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할 것이다. 즉, 나는 칸트가 그의 유작에서 『순수이성비판』 B판(1787)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전제, 순수한 공간·직관의 형식으로서의 공간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할 것이며, 이 문제적인 전제의 배경으로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1786)에서 도입된 경험적·질료적 공간을 놓고자 한다. 나아가 나는 이로 인해 『순수이성비판』 B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 관한 논의들 중 일부를 칸트가 더 이상 유작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나는 말년

의 칸트가 유작에서는 지성의 범주가 왜 경험 대상들의 인식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순수이성비판』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며, 범주가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는 까닭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증명이 에테르에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단, 나는 본 논문의 주장을 개진하기에 앞서 칸트가 *Opus postumum*에서의 논의들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당부해두고자 한다. 즉, 한편으로 칸트는 자신의 유작을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간주하고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관한 원고들의 경우엔 출판할 의도까지 보였지만⁶⁾, 다른 한편으로 유작의 처분에 대해 확실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죽었다.⁷⁾ 따라서 칸트가 유작에서 보이는 관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가령 칸트는 그의 마지막 원고들에서 시험적인 시도들을 해보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선 유작의 논의들을 그의 철학 체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유작에서의 칸트의 논의들에 사고실험 그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자제하고 싶으며,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는 독자들과 이후의 해석자들에게 맡긴다. 달리 말해, 본 논문에서 내가 말하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의 배경은 단지 하나의 사고 실험의 배경이다. 즉, 나는 칸트가 단지 시험 삼아 『순수이성비판』과는 다른 방법으로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순수이성비판』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진지한 반성 속에서 에테르의 현존을 요청했고, 또 그 관점을 죽는 그 순간까지 유지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결국, 출판되지 않은 미완성 저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지의 문제는 유고·유작에 대한 모든 연구를 따라다니는 숙명일 수밖에 없으며, 나

6) *Opus postumum*, Eckart Förster · Michael Rosen(Trans.), Eckart Förster(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xvi-xvii 그리고 p.xl.

7) 칸트는 때로는 자신의 유작을 마무리 손질 작업만을 필요로 하는 완성 직전의 저작으로 간주하면서도 종종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원고들을 모두 태워버리길 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Ibid.

는 본 논문의 논의가 칸트가 마지막으로 기획해보았던 저작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여하간 나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의 배경으로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 관한 칸트의 관점 변화가 포함된다는 주장을 위해 배경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1절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1절에서 나는 칸트가 *Opus postumum*이라는 저작을 기획하게 된 까닭, 즉 이행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에테르의 현존 증명이 이 이행의 문제의 답으로 간주됨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칸트가 제시한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논증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에테르의 현존 증명의 배경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들을 검토할 것이다. 나는 특히 *Opus postumum*의 중심적인 관심사가 에테르의 현존 요청을 전후로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에테르의 현존 요청이 단순히 자연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답인지, 아니면 ‘어떻게 선형적 종합판단은 가능한가?’ 등의 『순수이성비판』에서 다루어진 문제들과도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제기됨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에테르에 대한 Friedman, Werkmeister, Förster 등의 해석을 검토해 보고, 이들의 논의 중 어느 것도 에테르의 현존 요청의 배경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석이 되기 어려움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2절에서 최근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학계에 소개했었던 김재호의 주장과는 달리 칸트가 에테르를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뿐만 아니라 분배적 통일성의 토대로도 간주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칸트의 이런 주장의 배경과 관련하여 에테르의 현존증명에서 칸트가 도입하고 있는 전제에 주목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즉, 칸트는 순수 직관, 감성의 형식으로서의 공간이 그 자체로는 경험에 대해 공허함을 근거로 에테르의 현존을 주관적으로 요청하는데, 이런 칸트의 전제는 이미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감성학의 귀결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는 칸트의 이 전제가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원리』에서의 경험적·질료적 공간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는 해석을 개진하고, 이 전제에 대한 인정이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논증 전략, 특히 §26에서의 논증 전략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을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나는 *Opus postumum*의 후반부에서 관찰되는 급격한 논의 변화가 『순수이성비판』의 §26에서의 논의를 의식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본 논문의 핵심 주장, 즉 말년의 칸트가 에테르의 현존을 요청했던 배경에는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줄 것이다.

한편, 3절과 4절의 논의들은 2절에서의 본 논문에서의 주장을 *Opus postumum*의 세부 논의들을 통해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3절에서 나는 자기정립이론을 통해서 에테르의 현존 증명이 실제로 『순수이성비판』의 §26의 논의에 대응함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순수한 공간이 그 자체로는 경험에 대해 공허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였을 경우,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범주의 연역 전략 중 하나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에테르라는 객관이 충족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진 객관으로서의 에테르의 성격이 강조될 것이다. 나아가 나는 4절에서 앞선 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한 귀결, 즉 칸트가 *Opus postumum*에서 『순수이성비판』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사변이성과 지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칸트가 개념으로부터 창조된 객관이라는 착상을 그의 초월철학의 새로운 정식화 시도에서 본질적인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로써 나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의 이면에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 과정을 더 이상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게 된 칸트의 변화가 깔려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에테르의 현존 증명과 그것의 배경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

에테르[Äther]의 현존[Existenz]에 대한 증명은 *Opus postumum*의 중반부에 갑작스럽게 등장한다.⁸⁾ 물론, 칸트가 광물질[Lichtstoff] 혹은 열

8) 이하의 논의들에선 해당 저작을 지칭할 땐 ‘Op’라는 표현 사용. 한편, 논의에

소[Wärmematerial · Wärmestoff]라고도 부르는 에테르에 대한 언급들은 시기상 좀 더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들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초기 원고들에서 칸트는 에테르를 물질의 응집력[Zusammenhang]과 화학적인 상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했었다(*Op*.21:374 · 378 · 404). 그리고 이처럼 에테르를 통해 특정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독특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자연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에테르 혹은 열소를 가정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이르러 에테르는 응집력이나 물체의 상태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존재자 이상의 것으로, 즉, 가능한 경험을 위해 현존한다고 간주되어야만 하는 존재자 그 자체로 격상된다. (*Op*.21:216) 그렇다면 칸트는 왜 에테르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을까?

초기 원고들에서 칸트는 그의 자연철학적 견해들을 담은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1786)의 결함들을 풀기 위한 ‘이행’[Übergang]

있어 미리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는데, 이는 *Op*에 관한 학술원판 전집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다. 즉, *Op*에 관한 학술원판 전집은 원고의 내용들을 저술 시기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배제한 상태로 전집 21권과 22권에 *Op*의 원고들을 수록하였다. 그 결과 학술원판 전집은 처음 입수되었을 때의 원고들의 면모를 전체적으로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 원고들의 연대기적인 순서에 있어서 뒤섞인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히 학술원판 전집을 통해 *Op*의 내용에 접근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Op*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들은 많은 경우 몇몇 부분들에서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Adickes가 제시한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Op*에 대한 논의 역시 최근 영미권에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출판된 Förster와 Rosen의 *Op*에 대한 재구성의 산물에 기초한다. 한편, 나는 부득이하게도 해당 영역본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학술원판 전집에 기초하여 *Op*에 관한 논의들에서 전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을 접하는 독자들로서는 논문에서의 인용이 순서에 맞지 않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독자들이 겪을 불편함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Förster와 Rosen의 원고들에 대한 서술 시기 추정에 관해서는 Förster, 1993, pp.xxiv-xxix. 그리고 pp.296-297 참조. 한편, *Op*에 관한 학술원판 전집의 문제점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김재호, 2006, pp.337-345를 참조.

9) 김재호, 2013, pp.149-150.

이라는 과제로 고심하고 있었다.¹⁰⁾ 그리고 칸트는 이 이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연의 힘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선형적인 관계들을 다루는 힘의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즉, 칸트는 *MAN*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응집력 혹은 그것의 개념이 자연과학의 순수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겼다.¹¹⁾ 그런데 이처럼 응집력이 새로이 자연과학의 순수한 부분에 포함된다면 응집력, 그리고 *MAN*에서 이미 자연과학의 순수한 부분에 귀속되었던 힘인 인력과 척력 사이에서 성립할 수 있는 힘들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를 해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칸트는 ‘이행’의 과제를 “힘들이 (...) 서로 통일되거나 반대되는 한에서만”(Op.21:478) 다루는 것, “오로지 물

10) 이하의 논의들에서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를 지칭할 때 ‘*MAN*’이라는 표현 사용. 에테르의 현존 요청 이전의 초반부 원고들에는 4번째 합본 [Konvolut]에 포함된 낱장 문서들과 소위 ‘8절지초안[Oktaventwurf]’, ‘A’부터 ‘C’, ‘α’부터 ‘ε’, ‘No.I’부터 ‘No.3n’, ‘Elem. Syst. 1’부터 ‘Elem. Syst. 7’의 분류 기호가 붙은 원고 등이 포함된다. Förster, 1993, p.xxvii와 pp.xxxviii-xl 참조.

11) *MAN*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MAN*은 물질의 밀도에 대한 순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MAN*에서 칸트는 인력이 질량에 비례하거나 부피가 주어졌을 경우 물질의 밀도에 비례한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물질의 밀도는 인력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주장했었다.(*MAN*.4:521) 그래서 Tuschling과 Förster 모두 Op의 초반부에서 칸트가 물질의 밀도가 응집력을 통해 결정된다는 대안을 고려했음을 지적한다. Tuschling, 앞의 책, p.202. 그리고 Eckart Förster, “Kant’s *Selbstsetzunglehre*”, *Kant’s Transcendental Deductions -The Three Critiques and the Opus Postumum*, Eckart Förster(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p.223-224. 한편, *MAN*에서 칸트는 화학을 참된 자연과학이 아닌 기예의 일종으로 간주했었다.(*MAN*.4:417) 그런데 Friedman은 칸트가 라부아지에 등에 의해 주도된 화학 혁명을 겪으면서 화학 역시 참된 과학에 속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화학 역시 여타의 참된 자연과학처럼 순수한 부분을 토대로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Friedman, 1993, p.xv, p.240. 이런 화학의 문제 역시 결국은 응집력 혹은 응집력의 개념이 자연과학의 순수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로 연결된다. Op의 초반부에서 칸트는 화학의 주된 대상인 물질의 상태변화를 물질의 응집력의 변화 과정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는데(Op.21:474), *MAN*에서는 응집력을 물질의 가능조건으로 선형적으로 생각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인력·척력과 달리 자연과학의 순수한 부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MAN*.4:518)

질의 생각 가능한 힘들과 그들의 법칙”(Op.21:309)을 다루는 것으로 규정한다.

물질의 모든 힘들의 전체[Ganzen]에 관한 집합적인 관념[kollektive idee]이 경험적일 뿐인 모든 개별적인 힘들의 분배적인 관념[distributiven idee]에 선험적으로 앞선다[vorausgeht] (Op.22:200)

단지 규제적[regulatives]이지만은 않고 동시에 구성적인[konstitutives], 선험적으로 존재하는[bestehendes] 자연과학의 형식적인 원리가 하나의 체계를 위해서 존재한다. (Op.22:240)

그러므로 이성 본래 오로지 지성과 이것의 합목적적인 사용만을 대상으로 갖는다. 지성이 잡다를 객관에서 개념들에 의해 통일하듯이, 이성은 그 나뉠름으로 개념들의 잡다를[곧, 잡다한 개념들을] 이념들에 의해 통일한다. 지성작용들은 분배적 통일을 일으키는 데 비해, 이성은 이 지성작용들의 목표에 모종의 집합적 통일을 정립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KrV:B671-672)

그런데 칸트는 이미 Op의 초반부에서 ‘이행’을 위해 비판기의 관점과는 모순되어 보이는 선험적 원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비판기의 관점에 따르면 객관 인식과 관련된 지성의 구성적인 활동은 인식 내용에 대한 주관적 반성을 위한 규제적인 활동과 혼동될 수 없었으며,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 역시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과 동일할 수 없었다. 특히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과 집합적 통일성은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계속 등장할 개념이기 때문에 짚막하게나마 설명을 해두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은 지성이 그 자신의 개념, 범주를 통해서 잡다들을 종합·통일하여 객관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을 성립시킴으로써 생기는 통일이다. 즉, 개별적인 인식 내용들은 지성의 개념이 분배되면서 성립되는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어떤 객관에 대한 인식은 인과범주에 의해 선행하는 원인을 전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 객관과 원인 사이에는 인과적인 통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경험의 ‘집합적 통일’은 이성이 지성의 개념들에게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인식 주관이 자신의 인식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별적인 인식 내용들을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들로 수렴·통일시키는 과정을 통해 추구된다.(*KrV*:B673-674) 예컨대, 비판기의 칸트는 경험적인 인식을 통해 주어지는 개별적인 힘들을 보다 보편적인 유와 종 아래에서, 근본적인 힘 아래에서 이해하는 것을 이성이 요구하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KrV*:B678-679)

그런데 칸트는 이성의 규제적인 활동의 소관에 속하는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과 지성의 구성적인 활동의 소관에 속하는 ‘분배적 통일성’이 동일할 순 없다고 주장했었다. 가령 우리는 개별적인 힘들이 근본적인 힘 아래로 통일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별적인 힘들이 근본적인 힘 아래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에서 이성의 요구에 따라 잡다한 힘들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즉,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은 『판단력 비판』에서 등장하는 자연 탐구의 준칙, 예컨대 “자연은 가장 짧은 길을 간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KU*:V182) 그러나 설령 개별적인 인식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더라도, 혹은 개별적인 힘들을 하나로 묶어줄 근본적인 힘이 끝내 발견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힘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지성의 힘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은 자연에서 실제로 마주쳐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성의 목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p*의 칸트는 ‘이행’이 기초해야 할 선험적 원리가 규제적이면서도 구성적이어야 주장함으로써 비판기의 구분을 이탈한다.(*Op*.22:243) 즉, 이행은 한편으로는 인식 주관이 대상 인식에서 부가해야 할 추상적인 법칙·개념들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이행은 한편으론 “선험적인 개념들의 경험 일반으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Op.21:311) 원리에 관한 것이다. 즉, 이행은 추상적인 운동법칙들이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적 체계를 다룬다.(Op.21:311,22:240) 동시에 이행은 힘들의 체계로 규정되는 외적 경험세계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적인 원리들도 포함하는, 힘들의 유와 종의 체계로

규정된다.(Op.21:474 · 478,22:354 · 550) 즉, 이행은 “자연의 실제 객관들을 원칙에 따라 분류하는”(Op.21:477) 기준을 포함해야만 한다. 물론, 칸트가 이런 착상을 가지게 된 배경 자체에 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나는 본 논문에선 칸트가 이런 원리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까지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¹²⁾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칸트는 에테르라는 한 개별적인 존재자가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착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질료[에테르]의 개념은 (...) 물질의 모든 힘들의 선험적 연결의 토대”(Op.21:230), “힘들의 체계의 토대이다.”(Op.21:233) 즉, 모든 힘들은 에테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Op.21:583 · 585) 따라서 에테르는 “힘들의 집합적 통일성은 객관적으로는 근본물질[Elementarstoff]의 절대적 전체의 결과[Wirkung]”(Op.21:601-602)로 간주될 수 있기에 경험의 집합적

-
- 12) 이런 칸트의 주장의 배경에 대한 논쟁은 종종 『판단력비판』과 결부되기도 한다. 예컨대, Mathieu는 ‘이행’이 『판단력비판』에서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과 관련하여 주어졌던 선험적 원리, 즉 반성적 판단력의 규제적인 능력만으론 우리가 실제 경험에서 발견한다고 믿는 집합적 통일성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칸트의 반성에서 나왔다고 본다. “칸트는 그가 거기에서 제안했었던 ‘마치 인것처럼’의 원칙을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 이 생각은 이제 칸트에게 불만족스럽게 보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판단력은, 만약 그러한 원칙이 전제된다면, ‘자연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자신에게만’ 법칙을 주기 때문이다. (...) 자연적 세계의 통일성은 한갓 ‘마치 인것처럼’에 의존할 수는 없다(...)” Vittorio Mathieu, *Kants Opus postumum*, Gerd Held(Ed.), Vittorio Klostermann, 1989, p.42. 이에 대해 Förster는 이행의 계획이 『판단력비판』의 출간 이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성립했기에, 이행이 『판단력비판』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왔다고 보기에는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판단력비판』의 성과에서 왔다고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ckart Förster, *Kant's Final Synthesis - An Essay on the Opus Postumu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p.3-7. 한편, Friedman은 칸트가 화학혁명이라는 외적인 계기를 통해 자연에 대한 규제적인 원리들조차 경험의 가능조건들에 기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끝에, 자연에 집합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규제적인 원리들과 자연에 분배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구성적 원리들을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이행’을 구상했다고 본다. Michael Friedman, *Kant and the Exact Scienc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260-264.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질료적인 원칙”(Op.21:585), ‘이행’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에테르의 현존을 선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Förster 등의 지적에 따르면 에테르라는 하나의 개별 존재자가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Op에서의 칸트의 착상은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초월적 이상, 신에 관한 논의들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이상에 관한 장에서 모든 실재성을 완전하게 갖춘 신이 정말로 현존한다면 신을 통해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각각의 존재자들은 최고 존재자의 결과로, 최고 존재자의 실재성 중 일부를 결여한 것으로 표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KrV:B606) 그리고 에테르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신에 대한 그의 논의들과 비슷하다. 즉, 칸트는 근원존재자를 실체화할 경우, 신에 대해 최고 실재성이라는 개념만으로도 유일한 것, 단순한 것, 영원한 것 등의 술어를 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KrV:B608) 그런데 칸트는 에테르에 대해서도 그것의 속성이 분석적으로 도출된다고 주장한다.¹³⁾ 나아가 신이 필멸자들의 속성의 부정에 해당하는 속성을 갖는 것처럼 에테르는 경험 대상들에게 부가되는 속성의 부정을 속성으로 가진다.(Op.22:610)¹⁴⁾

물론,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어떤 존재자의 현존을 증명하는 것은 그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기에 선험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었고 (KrV:B272-273 · 629), 그래서 신의 현존에 대한 선험적인 증명은 부정되었다. 그리고 칸트는 Op에서도 신존재 증명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의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칸트는 에테르라는 객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객관이 존재함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에테르는 직접 관찰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에테르의 존재를 보이려는 시도는 에테르의 존재를 가정적으로 상정하는

13) Op.21:584. 이에 대한 Förster의 해석에 대해서는 Förster. 2000, p.97을 참조하라.

14) 에테르와 신의 유사성에 관한 이 문단에서의 논의는 위의 책, pp.75-82. 그리고 pp.91-99. 그리고 Friedman, 앞의 책, pp.300-304 참조.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칸트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Op*.21:549) 이 간접적인 방법이란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 신의 현존이 주관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듯이(*KpV*:A226) 에테르의 현존이 “가능한 경험의 조건들로부터 도출”(Op.21:222)되는 불가피한 것임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즉, 에테르의 현존은 주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에테르로 인해 가능해진 경험은 지성의 규칙들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분배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합적 통일성 역시 가지게 된다.(Op.22:550-551) 그리고 칸트가 제시한 에테르의 현존 요청에 대한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¹⁶⁾

1. 경험은 지각의 연결로서의 표상이다. H(*KrV*:B161)
2. 외적 객관들에 대한 지각은 주관에 대한 힘의 작용 결과이다. H(*Op*.22:377)
3. 외적 객관에 대한 표상은 언제나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만 주어진다. H(*KrV*:B38-39)
4. 빈 공간은 지각 가능한 표상이 아니다. 외적 객관은 빈 공간과 관계 맺을 수 없다. H(*Op*.21:217)
5. 경험은 주관에 대한 힘의 작용 결과들의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과 2로부터]

15) 종종 ‘유일한 가능한 경험’[eine mögliche Erfahrung]이라고도 표현되는 ‘가능한 경험’[mögliche Erfahrung]은 “현상에 대한 경험이라는 점을 우리의 경험에 관해 특히 강조한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가능한 경험’ 개념은 우리의 인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한계와 그 내부의 전체를 의미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부당한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짊어지게 된다[B 121].” 즉,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경험의 가능성’[die Möglichkeit der Erfahrung]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경험적 인식을 근거지우는 원리·원칙들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면, ‘가능한 경험’은 이 원칙들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계로서의 범위, 혹은 이 원칙들에 의해 가능해진 인식의 영역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신철, 앞의 책, p.298-299.

16) 논증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Förster. 2000, pp.89-91. 그리고 김재호, 2013, p.154 참조.

6. 지각가능한 공간은 힘들로 채워져 있다. 혹은 힘들의 복합체이다.
[2와 4로부터]
7. 경험은 힘들로 채워져 있는 공간 안에서의 주관에 대한 힘의 작용
결과들의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 5, 6에서]
8. 경험은 힘들로 채워져 있는 공간에 의해서 가능하다. [7로부터]
9.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경험을 위해 에테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
다.¹⁷⁾ [8로부터]
10. 우리는 경험을 실제로 가진다. H
11. 에테르는 현존한다. 혹은 에테르의 현존은 가능한 경험을 위해
요청된다. [9와 10에서]

칸트의 이 논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전후로 한 *Op*의 급격한 성격 변화이다. 즉, 에테르가 토대로 간주되는 ‘이행’의 문제는 주로 *MAN*, 자연철학적인 문제의식과 접목되어 있었고 에테르 역시 자연 과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대상인 힘들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 존재자로 간주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기점으로 칸트의 관심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인다. 즉, 칸트는 에테르의 현존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행 1-14’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이후의 원고들에선 『순수이성비판』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주제들을 재론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AA’, ‘BB’라는 분류기호가 기입된 원고에선 순수직관으로서의 시공간에 대한 논의가, ‘A’에서 ‘Z’까지의 분류기호가 기입된 원고들과 7번째 합본[Konvolut]¹⁸⁾에선 『순수이성비판』에서의 관념론 논박의 보완의 성격을 지니는 자기정립에 관한 논의가, 1번째 합본에선 초월철학 그 자

17) *Op*.21:229.

18) “칸트 사후 오랜 기간 사라졌던 원고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문서들이 13개의 인쇄용지 겹표지 속에 넣어져 보관되어 13개의 ‘합본’(Konvolut)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김재호, 2013, p.144.

체에 대한 재정식화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분기점으로 유작의 성격이 급격히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에테르의 현존 증명이 *Op* 전체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에테르의 현존 증명이 자연철학적인 문제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작의 후반부에서 재론되는 『순수이성비판』 등에서의 문제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다. 이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몇몇 해석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해석들이 불만족스러움을 지적할 것이다.

우선, Friedman은 칸트의 이행의 문제를 비판 철학의 내적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화학 혁명 등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 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것[이행]은, 오히려, 18세기의 과학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토대적인 문제들 중 하나로부터 기인했다.”¹⁹⁾ 즉, Friedman에 따르면 ‘이행’은 *MAN*에서 과학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었던 화학을 과학으로 포섭할 수 있게 해주는 ‘순수한 부분’을 찾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Friedman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에테르의 현존에 대한 칸트의 요청이 ‘이행’의 답에 해당한다고 보고,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자연과학적인 배경에서 기인한 자연철학적 문제로 이해한다. 그래서 Friedman의 에테르 현존 증명에 대한 평가 역시 철저하게 화학혁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²⁰⁾ 따라서 Friedman은 에테르의 현존 증명 이후 논의되는 문제들, 예컨대 『순수이성비판』의 핵심 문제이기도 했던 ‘어떻게 선형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의 문제(*Op*.22:80) 등과 결부시켜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한편, Werkmeister는 *Op*가 이중적인 두 작품을 묶어놓은 것이라는 해석, 소위 ‘두 작품 이론’을 제시한다.²¹⁾ Werkmeister의 지적에 따르면

19) Friedman, 앞의 책, p.240.

20) “만약 화학 혁명의 성공이 이제 우리에게 대응하는 객관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이제 경험적인 혹은 가설적인 주장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 에테르 연역은, 그러므로 이행 프로젝트는 따지고 보면 반드시 실패로 간주되어야 한다.” 위의 책, p.328.

*Op*는 자연철학적 문제로서의 ‘이행’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작품과 유기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등을 포함하는 초월철학 자체에 대한 재정식화를 취급하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²²⁾ 즉, Werkmeister는 집합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경험의 어떻게 가능한지의 문제에 관해 칸트가 에테르의 현존을 요청함으로써 답을 주었다고 본다. 그런데 Werkmeister에 따르면 에테르의 현존 요청으로 가능해진 집합적 통일성을 갖춘 힘의 체계만으로는 유기체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유기체는 목적 개념 등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²³⁾ 그래서 Werkmeister는 이행의 계획만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의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기엔 불충분”²⁴⁾하기에 칸트가 *Op*의 후반부를 이루는 다른 작품을 구상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에테르의 현존에 대한 증명을 단순히 자연철학적인 문제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해석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Op*의 가장 중요한 후반부 논의인 자기정립이론만을 놓고 보더라도, 칸트는 자기정립이론을 개진하는 가운데 에테르에 대한 언급을 종종 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이후의 논의들에서 언급되겠지만, 인식주관이 자신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기정립이론은 에테르에 대한 요청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에테르 자체가 비록 중심적인 논의주제에선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21) “우리가 *Opus Postumum*으로 알고 있는 기록들과 단편들은 (...) 내 판단으로는 어느 것도 칸트가 완성하지 않았던, (...) 두 중요한 작품의 발생에 관한 기록이다.” W.H. Werkmeister, *Kant: The Architectonic and Development of His Philosophy*, Open Court, 1980, p.173. 이처럼 *Op*를 이중적인 두 작품의 합으로 보는 관점 자체는 1884년 파이팅거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지만, 1920년 Adickes의 반박 이후엔 그 세를 많이 잃었다. 소위 ‘두 작품 이론’이라고 불리는 관점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재호, 2006, pp.329의 각주 47. 김재호, 2013, pp.145-156의 각주 14 참조.

22) Werkmeister, 앞의 책, p.173.

23) 위의 책, pp.185-188.

24) 위의 책, p.188.

25) 가령 *Op*.22:413 · 475-456 · 508 · 550-551 등을 참조하라.

에테르가 후반부 논의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칸트는 초월철학을 재규정하는 과정에서도 “초월철학은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에서 시작하고, 물리학으로의 이행의 선험적인 원칙들과 물리학의 형식적 측면들을 포함한다”(Op.21:95)고 말함으로써 이행과 에테르에 대한 구상이 초월철학에 대한 재정식화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Werkmeister가 Op를 이중적인 두 작품의 합으로 이해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유기체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Op가 ‘이행’의 작품과 다른 작품의 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차이에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분명 칸트는 이른 시기의 유고들에서는 ‘이행’의 문제에서 목적 개념을 요구하는 유기체의 가능성과 유기적 힘들의 법칙의 이해 문제를 배제한다.(Op.21:407) 그러나 칸트는 이후 생각을 바꾸어 “유기적 물체[Organische Körper]는 자연 기계[natürlich Maschine]들이며,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들의 물리학으로의 경향[Tendenz] 속에서 물질의 다른 동적인 힘[bewegenden Kraft]들처럼 반드시 그것들의 역학적인 관계[mechanischen Verhältnis]들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Op.21:186)고 보고, “자연 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로부터 물리학으로의 이행은 불가피하게도 [유기적 물체들에 대한] 이 개념으로도 이어진다”(Op.21:211)고 말한다. 물론, 비판기의 관점을 따를 경우, 유기체와 비유기체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Op에선 “목적인[Endursache]들은 자연의 동적인 힘들에게 똑같이 속하는데, 그것의 선험적 개념은 자연에 대한 탐구의 실마리로서 물리학에 선행한다”(Op.21:184)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유기체와 비유기체에 대한 비판기의 관점에 배치되는 것 같은 구절들 역시 발견된다. 그렇기에 비판기적인 관점에 근거해 Op가 두 작품의 합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에테르의 현존 증명은 『순수이성비판』에서 다루어졌던 문제들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Op 후반부의 논의들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 Förster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즉, Förster는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 증명이 완성되지 못했

음을 주장하면서 에테르의 현존 증명이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보완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Förster는 도식론을 “범주들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증명”²⁶⁾으로 간주하면서 『순수이성비판』 A판(1781)과 B판(1787)의 차이에 주목한다. A판에서 칸트는 도식론을 “선험적인 시간 규정”(KrV:A145)으로 간주했었다. 그런데 A판이 출판된 이후 칸트는 그의 입장을 “버클리의 경험적 관념론과 흄의 회의주의의 관점에서 오독한”²⁷⁾ 1782년의 괴팅겐 서평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Förster는 칸트가 괴팅겐 서평과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B판에서처럼 ‘외적 직관’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²⁸⁾ 그런데 Förster는 이처럼 칸트가 외적 직관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기울면서 A판에서의 도식론이 불충분한 것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도식론 챕터는 오로지 시간 규정들과 내감만을 다루기 때문에 범주들의 적용에 관한 충분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외적 직관의 형식들과 원칙들을 전체로서 제시하는, 그러므로 범주들을 외적 직관의 가능한 객관과 관계시키는 작업을 통한 보완을 요구하였다.”²⁹⁾

그리고 Förster는 A판과 B판 사이에 출간된 MAN(1786)이 그 보완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Förster의 관점에선 외적 감각들의 객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 증명은 “이 개념 혹은 물질 일반에 대한 개념(4:476)이 (...) 구성”³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MAN은 “어떻게 ‘물질’ 개념이 이와 같이 주어진 요소들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지를 증명”³¹⁾하는 과정을 혹은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을 선험적으로 어떻게 현시”³²⁾할 것인지 보이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MAN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기

26) Förster, 2000, p.57.

27) 『형이상학서설』, 백종현 역, 아카넷, 2012, p.23. <『형이상학서설』 해제>

28) Förster, 2000, p.58.

29) 위의 책, p.59.

30) 위의 책, p.61.

31) 위의 책, p.62.

32) Ibid.

때문에 물질의 구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었다. 그리고 Förster는 칸트가 *Op*의 초반부에서는 여전히 물질의 개념이 상이한 힘들로부터 선형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A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p*에서의 노력의 결과는 물질의 밀도가 응집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척력과 응집력이라는 두 힘들 모두 그들이 작용하는 물질의 부분들의 거리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표상되어야 한다.”³³⁾ 결국, “이 힘들로부터의 외감의 객관의 형성은 더 이상 순수 직관에서 구성될 수 없다.”³⁴⁾ 그래서 Förster는 칸트가 자신의 시도가 좌절된 이후, “순수 이성 비판의 출판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그것의 개념들과 원칙들의 객관적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만족스러운 증명을 기다리고 있었”³⁵⁾음을 깨달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Förster는 칸트의 대안이 에테르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즉, Förster는 칸트가 에테르라는 객관의 속성이 혹은 에테르라는 개념의 술어가 분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칸트가 이로부터 지성이 외감에 주어진 잡다를 종합할 때 사용하게 될 개념들을 범주에 따라 분석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본다.³⁶⁾ 그리고 Förster는 자신을 정립하는 인식 주관이 이 개념들을 잡다에 삽입한다고, 도식으로 활용한다고 본다. 즉, 지성의 종합을 통해 외감의 객관은 에테르의 개념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예화하는 것으로 인식된다.³⁷⁾ 물

33) 위의 책, p.71. 이런 Förster의 주장은 *MAN*에서의 칸트의 논의에 기초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MAN*에서 칸트는 인력이 투과적인 힘인데 비해 척력이 표면적인 힘임을 지적하면서, 투과적인 힘으로서의 인력과 표면을 통해서만 작용하는 척력의 운동법칙이 다르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칸트는 이처럼 상이한 유형의 힘의 법칙이 적용되는 인력과 척력에 의해 물질이 정해진 밀도를 가지고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MAN*4:521) 그런데 칸트는 *MAN*에서 응집력 역시 표면적인 힘으로 규정했다. (*MAN*4:519) 그렇다면 이런 *MAN*에서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응집력과 척력은 그것들이 모두 표면적인 힘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힘의 법칙을 적용받아야 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34) Förster, 2000, p.62.

35) 위의 책, p.73.

36) 위의 책, p.111.

론, 예컨대 외감의 객관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질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³⁸⁾ 그래서 Förster는 칸트가 에테르의 개념을 배경으로 도식론을 보완하는데 성공했다고 본다.³⁹⁾ 어떻게 본다면 에테르의 개념이 범주의 초월적 연역을 위한 열쇠가 된 셈이다.

따라서 Förster의 주장대로라면 칸트의 에테르의 현존 증명은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 증명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국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정식화했던 문제인 ‘어떻게 선험적 종합판단은 가능한가?’라는 문제와도 무관할 수 없다. 그래서 Förster의 해석을 따를 경우,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대한 논의 이후 ‘어떻게 선험적 종합판단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초월철학에 대한 재정식화가 수행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이런 Förster의 해석은 확실히 *Op*의 전반부의 내용들로부터 칸트가 어떤 반성의 과정을 거쳐 *Op*의 후반부의 내용들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Friedman이나 Werkmeister의 에테르의 현존 요청의 배경에 대한 해석에 비해서 하나의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Förster의 해석은 정당한가? 일단 Förster가 제시한 전거(*Op*.22:389-379)를 제외하더라도, 칸트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 이후, 지성이 에테르를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Op*.22:325) ‘이행’을 도식론으로도 규정한다.(*Op*.21:169) 즉, 에테르의 개념이 도식화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한다는 해석에 전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테르가 도식론의 열쇠가 된다는 해석 자체를 문제 삼진 않겠다. 그러나 Förster의 해석엔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Förster가 도식론을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초월적 연역 그 자체라고 간주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순수 지성 개념들의 초월적 연역에 관한 절을 마련하여 통각의 근원적 종합적 통일 작용에 의거해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며 범주의 연역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27절에서 요약한다.(*KrV*:B165-169) 다시 말해,

37) Ibid.

38) 위의 책, p.112.

39) 위의 책, pp.113-114.

도식론이 등장하는 판단력의 초월적 교설에 관한 논의에 앞서 칸트는 이미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 증명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칸트가 “어떻게 (...) 범주가 현상들에 적용되는 일이 가능한가?”(*KrV*:B176)라는 물음을 도식론에서 다시 던지긴 하지만 이 물음은 범주의 인식 구성적인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도식론의 논의들은 “범주들의 연역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KrV*:B178) 지성의 작용방식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것들로 보인다.

한편, 보다 심각한 문제가 *MAN*과 관련된 Förster의 해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Förster는 *MAN*이 물질의 개념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을 선험적으로 현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Förster는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을 선험적으로 현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MAN*이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 증명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MAN*이 논의 대상으로 삼았던 ‘물질’은 경험 개념이며 그에 대응하는 객관이나 직관 역시 감각 객관, 경험적 직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험적 직관은 감각 질료가 주어질 때에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물질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을 대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험적으로 현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MAN*이 물질의 개념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Förster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Förster가 말하는 것처럼 물질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을 선험적으로 현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더라도, 비판기의 관점에서 이것이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 증명과 결정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칸트는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은 그것들이 “경험 일반에서 대상들을 규정하는 형식적 조건들로서의 개념”(*KrV*:B272)이기 때문에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범주는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경험 대상들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다. 오히려 칸트는 예컨대 삼각형에 대한 직관을 선험적으로 현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대상의 형식일 뿐이므로, 그것은 아직 단지 상상의 산물로 남을 뿐이

고, (...) 그것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 그러한 도형이 경험의 모든 대상들이 의거하는 순정한 조건들 아래서 생각될 것이 요구”(KrV:B271-272)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Förster는 비판기의 칸트가 물질 개념의 ‘구성’이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 증명에 왜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는지를 해명할 책임 역시 안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에테르의 현존 증명의 배경에 대한 해석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Friedman과 Werkmeister의 해석은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Op*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과 연결시키는 해석들이 실패한 연후에야 차선으로 선택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Förster의 해석은 *Op*의 전반부 내용들로부터 칸트가 어떤 반성의 과정을 거쳐 후반부의 내용들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고 있긴 하나 해석상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Friedman이나 Werkmeister가 주장하는 것처럼 에테르의 현존 증명은 단지 자연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이하의 절에서부터 개진하고자 한다. 즉, 나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대한 배경으로 유작에서의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 전략을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되었음을 놓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나는 Förster와는 다른 이유에서 칸트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본다.

2. 에테르의 현존 증명과 순수한 공간 표상의 문제

1 절에서 언급했듯이 칸트는 에테르가 가능한 경험의 조건이기 때문에 요청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때, 칸트가 말하는 ‘경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칸트의 논증에 대한 요약과 함께 우리나라에 최근 소개했었던 김재호는 에테르에 의해 가능해지는 ‘가능한 경험’이란 경험의 “분배적 통일이 아닌 집합적 통일의 가능성”⁴⁰⁾이라고 주장한다. 김재호의 이런 주장은 에테르에 대한 칸트의 논증만을 놓고 보면 타당해 보이는데, 실제로 칸트가 에테르가 경험의

40) 김재호, 2013, p.156.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 존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의 현실성이 증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가능한 경험의 절대적 통일성에 속하는 것은 현실적이다.”(*Op.*21:602) 따라서 김재호는 에테르에 대한 칸트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비어있는 공간은 감각 가능한 대상이 아니므로, 현실에서 마주쳐지는 공간은 힘들로 가득 찬 복합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성이 요구하는 가능한 경험의 통일성은 힘들 사이의 집합적 통일성이다. 그리고 에테르는 집합적 통일성을 갖춘 경험의 필수 조건이면서도 하나의 객관이다. 따라서 이 근원물질의 현존은 요청될 수 있다.⁴¹⁾

나는 김재호의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관한 김재호의 정리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나는 김재호의 정리만을 놓고 보자면 에테르에 대해 칸트가 부여했던 중요한 위상 중 하나를 놓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즉, 나는 칸트가 에테르의 현존을 요청했던 배경에는 에테르가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 역시 가능하게 한다는 착상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행’을 위해 요구된 원리의 특징이다. 즉, 칸트는 ‘이행’을 위해 구성적이면서도 규제적인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Op.*22:240) 그러나 에테르가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만을 가능하게 한다면, 에테르는 주관의 인식 규제적인 활동과 결부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Förster 역시 에테르를 규제적인 이념의 일종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해석하긴 하지만⁴²⁾, Förster는 적어도 에테르가 지성의 도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에테르와 인식 주관의 구성적인 활동의 연관을 남겨두었다. 하지만 김재호가 그의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에테르가 단지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만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에테르가 ‘이행’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칸트의 주장은 ‘이행’을 위한 선험적 원리로 구성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성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는 칸트의 다른 주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41) 위의 책, p.154.

42) Förster, 2000, p.91.

한편, 내가 에테르가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의 조건도 된다고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이 논증의 특징에 대한 칸트의 언급들 때문이다. 칸트는 에테르에 대해서만 이런 요청이 가능함을 여러 차례 지적하는데, 그 중 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이 증명은 그것의 종류에서 유일무이한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가능한 경험 일반의 분배적 통일성의 관념[Idee von der distributiven Einheit]이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과 한 개념 안에서 일치하기[zusammenfällt] 때문이다.”(*Op.*21:552) 또 칸트는 “집합적 통일성[Gesamteinheit] (Omnitudo collectiva)의 이 객관[과] 힘들의 전체의 관념이 객관, 질료[Materie]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험개념들의 대상[Gegenstand]에 대한 분배적 규정[teilweise durchgängig Bestimmung] (Omnitudo distributiva)의 토대”⁴³⁾(*Op.*21:582)라고도 말한다. 다시 말해, 칸트는 에테르가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에 대한 토대 역시 되기 때문에 에테르에 의해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과 분배적 통일성이 일치할 수 있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에테르가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의 토대라면, 이 점은 확실히 에테르의 현존만이 ‘가능한 경험’을 위해 요청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신 역시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존재자로 간주되었는데(*KrV*:B606), ‘가능한 경험’을 위해 왜 신이 아니라 에테르의 현존이 요청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신과 달리 에테르는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에 대해서도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재호처럼 에테르가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의 조건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주장의 토대는 이것이다: 시간과 공간에서의 직관들은 한갓 형식에 불과하며, 감각에 대해 그것들이 알려질 수 있게 하는 어떤 것[etwas] 없이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존재[Existenz] 일반을, 특히 양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실재적인 객관[reale Objekt]들을 가능하게[an die Hand geben] 만들 수 없고,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경험에 대해 완벽하게 공허하게[leer] 남겨둘 것이다. 따라서

43) 번역에 관해서는 Föster, 1993, p.90 역시 참조.

저 일반적으로 가능한 경험의 선험적인 기저를 이루는 이 물질은 한갓 가정적인 것으로, 문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근원적으로 운동하는 것으로서 주어지는 세계 물질[Weltstoff]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으로 (...) 직관을 나타내기[bezeichnet] 때문이다.⁴⁴⁾ (Op.21:217)

그렇다면 칸트는 왜 에테르가 객관에 대한 분배적 규정의 토대가 된다고 말하는가? 지성에 의해 가능해지는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은 주로 『순수이성비판』의 문제였으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말년의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논의들 중 일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명백히 비판기의 칸트는 하나의 개별 존재자, 그것도 이성의 변증적 환상의 결과인 이상과 비슷해 보이는 개별 존재자에 지성의 활동이 의존한다는 생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 가운데 『순수이성비판』에서의 견해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주장을 추려낼 수 있을까? 그런데 칸트는 에테르의 현존을 요청하는 가운데 “첫 번째 명제”, 증명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비어 있는 공간은 지각될 수 없음, 가능한 경험의 객관이 아님을 든다.(Op.21:219) 즉, 칸트는 본 논문에서 H4로 제시되었던 이 전제를 근거로 에테르를 요청한다. 그렇다면 H4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단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은 물질 혹은 힘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H4가 그 정도의 의미만을 가질 수 없음은 위의 인용구로부터 분명한데, 여기에서 칸트는 직관의 형식으로서의 시공간이 에테르로 차있지 않으면 경험에 대해 완벽하게 공허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⁴⁵⁾ 하지만 이는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주장, 즉 “감성의 순수한 형식들에 의해서만 하나의 대상은 현상할 수”(KrV:B121) 있기 때문에 직관의 형식으로서의 시공간이 경험의 가능조건 중 하나라는 초월적 감성학에서의 주장과 모순되어 보인다.

44) 번역에 관해서는 Föster, 1993, p.68 역시 참조.

45) 이것과 비슷한 주장으로는 Op.21:232, 22:475-476 · 508 · 550-551 등을 참조하라.

‘물질적 공간’(ein materieller Raum)(XXI 223.22)은 ‘지각 가능한 존재’(Das Empfindbare)라는 점에서 그 자신 ‘가능한 경험의 대상’(ein Gegenstand möglicher Erfahrung)(XXI 223.22)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입장은 『순수이성비판』의 공간 이론과 분명 충돌을 일으킨다. ‘초월적 관념론’의 고전적 원리에 따르면 공간은 ‘직관의 형식’이거나 ‘순수직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우리 표상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일 수 없다.⁴⁶⁾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은 (...) 철저히 비판받는다. 직관의 형식들로서의, 비존재로서 간주된 그리고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시간과 공간은 한갓 사유이며, 객관들이 아니며, 가능한 경험의 조건들이 아니다. 직관의 형식들로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교설은 더 이상 시간, 공간, 시공간 안에서 객관들에 대한 경험의 가능성을 확립하지 않는다.⁴⁷⁾

H4, 즉 직관의 형식으로서의 시공간이 그 자체론 경험에 대해 공허하는 전제가 초월적 감성학에서의 논의들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이미 김재호나 Tuschling에 의해 지적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김재호와 Tuschling은 이 전제가 감성학의 논의들과 상반되기 때문에 비판기적인 관점에서 허용되기 어려움만을 지적했을 뿐, 이 전제가 기인한 배경을 *Op*의 바깥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H4, 즉 직관의 형식으로서의 시공간이 그 자체론 경험에 대해 공허하다는 전제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H4가 주어진 배경이 *MAN*이라고 생각하는데, *MAN*을 배경으로 놓는 해석은 두 가지 강점을 갖기 때문이다. 첫째, 칸트는 에테르의 현존 요청 이전의 원고들에서 *MAN*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풀고 있었다. 따라서 H4의 배경을 칸트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저작 그 자체에서 찾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둘째, H4로 인해 *Op*에서의 공간은 직관의 형식으로서의 순수한 공간과 에테르로 가득 찬 물질적·질료적인 공간으로 양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 물질적·질료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은 *MAN*에서 이

46) 김재호, 2013, p.159.

47) Tuschling, 앞의 책, pp.205-206.

미 등장한 개념이다. 나아가 *MAN*에서의 물질적인 공간에 대한 칸트의 주장이 부정적으로 발전되면, H4와 같은 급진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첫 번째 근거는 별도의 해설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

그 자체로 운동가능한[beweglich] 공간은 질료적인[materielle], 혹은 상대적인[relative] 공간이라 불린다; 모든 운동[Bewegung]이 마침내 그 안에서 생각되어야만 하는 (그러므로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운동 불가능한[unbeweglich]) 공간은 순수한[reine] 혹은 절대 공간이라 불린다. (MAN.4:480)

모든 경험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감각[empfinden]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감각 가능한 직관에서의 실재[Real]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운동에 대한 경험을 세우는[anstellen] 공간 역시 반드시 감각 가능해야만 한다. 즉, 감각 가능한 것을 통해 지시되어야[bezeichnet] 한다. 그리고 경험의 모든 대상들의 전체[Inbegriff]이자 그 자신 하나의 객관인 이것은 경험적 공간[empirische Raum]이라 불린다. (MAN.4:481)

비판기의 저작인 *MAN*에서 칸트는 지각 가능한 공간, 경험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에서 마주치는 공간은 항상 물질들로 가득 차 있는 경험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칸트는 이런 경험적인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물질과 마찬가지로 운동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Ibid). 즉, 우리가 물체의 운동이 그 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그 위에 배열하는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공을 굴렸을 때 공의 운동이 그 위에서 일어나는 공간, 즉 지표면 역시 지구의 자전에 의해 운동하는 하나의 대상이다.

이처럼 칸트가 경험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MAN*에서 도입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보인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적인 운동에 대한 경험이 절대운동이 아니라 상대운동임을 해명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운동

을 그 위에서 관찰하는 공간은 항상 그 자체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 예컨대 운동 속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정적인 기술을 할 수 없다. 즉, 물체의 운동에 대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운동이 그 위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Ibid) 한편,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도 직결되는 것인데, 바로 절대공간이 실재하는 것임을 부정하기 위해서이다. 운동에 대한 모든 기술은 상대적이기에 절대운동은 실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절대운동이 기술되기 위한 가능조건인 절대공간 역시 실재할 수 없는 것 같다. 곧, 우리가 그 위에서 운동을 관찰하는 공간은 여타의 물질과 마찬가지로 질료적인 것이기에 “결국은 하나의 확장된 질료적 공간을 전제”(Ibid)한다. 그리고 보다 큰 질료적 공간을 전제하는 절차는 무한히 반복된다. 그리고 상대공간과 관련된 이 무한퇴행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순수한 절대공간을 도입한다. 하지만 절대공간 자체는 질료적인 것이 아니기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관념에 불과하다.(MAN.4:560)

한편, 칸트가 경험적 공간을 도입한 세 번째 이유는 절대적 분할 불가능성을 가정하는 원자론적인 세계관에 대한 거부와 맞닿아 있다. 만약 우리가 실제 경험에서 마주치는 공간이 물질들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면 비어 있는 공간 혹은 진공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진공을 인정하게 될 경우 물질의 운동에 대한 그림은 원자론적인 것, 즉 절대적으로 분할 불가능한 원자들이 진공 속에서 움직이는 세계관과 흡사해진다. 그러나 칸트는 절대적 분할 불가능성이라는 속성을 초험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원자론적 세계관을 통해 물질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에 대해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물질 혹은 힘으로 가득 찬 경험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MAN.4:523-525)

그런데 우리는 MAN에서 제시된 경험적 공간으로 인해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간이 직관의 형식으로서 갖는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MAN에서 칸트는 외적 경험의 표상들이 배열되는 공간을 경험적 공간으로 국한시켰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운동에 대한 경험을 세우는 공간 역시 반드시 감각 가능해야만 한다.”(MAN.4:481) 즉, 순수

한 공간 표상은 우리의 경험 중 어디에서도 직접 마주쳐질 수 없는 대상이고, 그런 의미에서 외적 경험의 표상들에게 공간적인 관계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공간 표상이 외감의 표상들에게 공간적인 관계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근거는 무엇인가? 더군다나 *MAN*에서의 논의들을 오히려 경험적인 공간과 순수한 공간 표상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즉, 외감의 표상이 그 위에서 배열되는 경험적인 공간은 물질적인 것, 질료적인 것, 경험적인 객관의 하나로 간주되었다.(*MAN*.4:480) 그러나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간은 외감의 표상에 선행하여 표상될 수 있기에 주관에 속하는 형식이다.(*KrV*:B38-39·41) 그래서 비판기의 질료/형식 사이의 엄격한 구분만을 놓고 보자면 순수한 공간과 경험적 공간은 동일한 공간일 수 없을 것 같다. 나아가 직관의 형식이자 순수 직관으로 표상되는 공간은 그 자신 안에 무한 양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이자 하나이다.(*KrV*:B39-40) 즉,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간은 그보다 더 큰 공간의 부분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경험적 공간은 항상 더 큰 경험적 공간의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MAN*.4:481) 그래서 두 공간의 속성 역시 동일하지 않다.

위와 같은 우려는 단지 나 자신만의 망상은 아닌 것 같다. 즉, 앞서 인용했던 김재호는 H4가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간을 중심으로 했던 『순수이성비판』에서의 공간론과 충돌될 수 있음을 지적했었는데, 김재호가 제시했던 근거는 경험에 대해 유의미한 것으로 *Op*에서 제시되었던 공간이 물질적이며, 지각될 수 있고, 그 자신 하나의 객관으로 간주되는 표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김재호는 *MAN*에서의 공간론에 대한 내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MAN*에서의 경험적 공간 역시 물질적이며, 지각될 수 있고, 그 자신 하나의 객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가 위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할 경우, 여타의 경험 대상들이 배열되는 공간은 경험적인 공간뿐이므로 순수한 공간 표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외감의 표상들에게 공간적인 관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즉, Tuschling이 말하는 것처럼 직관의 형식으로서의 순수한 시공간은 더 이상 객관들에 대한 경험의 가능성을 확립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칸

트는 *Op*에서 정확히 이 주장을 개진한다. “공간 안에서의 모든 입자의 위치가 결정될 수 있기 이전에 동요[agitirende]하는 힘들을 통해 (인력과 척력을 통해) 끊임없이 운동하는,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 먼저 있어야만 한다. 이 물질은 가능한 경험의 객관으로서의 각각의 물질에 대한 토대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으로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위치도 그것에 할당될 수 없을 것이기에, 공간이 우선 경험의 객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Op*.21:550-551) 따라서 H4의 배경으로 *MAN*에서의 경험적인 공간에 대한 논의를 놓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특히 H4의 배경이 *MAN*이라는 내 주장은 단순 소거법적으로 생각해 봐도 타당성이 있다. 즉, H4는 『순수이성비판』의 중요 내용 중 하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일단은 『순수이성비판』 자체는 배경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에서 “『비판』의 요지를 좀 더 분명하게 간명하게 서술”⁴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형이상학 서설』 역시 H4의 배경에서 배제될 수 있다. 나아가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윤리 형이상학 정초』나 『실천이성비판』 등 역시 H4의 배경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배제될 수 있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Op*와 시기상 가장 가까운 비판기의 마지막 저서인 『판단력 비판』에서도 공간 개념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비판기의 다른 주요 저작들은 H4의 배경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그래서 H4의 배경으로 공간 개념이 재차 중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것도 하나의 객관으로서의 경험적·질료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MAN*을 놓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칸트가 *Op*에서 그러하듯 *MAN*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H4를 받아들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에 관해 나는 질료적인 공간과 순수 형식으로서의 공간 사이의 관계가 해명되지 않았다는 혐의가 생길 경우, 초월 논리학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MAN* 이후 등장한 『순수이성비판』의 B

48) 백종현, 앞의 책, p.23.

판에서 칸트는 통각의 통일 기능에 주목하여 직관의 모든 잡다는 것들이 한 의식 속에서 결합·통일될 수 있는 조건인 범주에 종속함을 증명했었다. 이때, §20과 §21에서 진행된 증명은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일반론의 차원에서 증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론 차원의 증명이기에 직관 일반의 “대상들이 감성적이기만 하면, 그것들이 우리들의 것이냐 다른 어떤 유의 것이냐는 상관하지”(KrV:B150) 않는 것이다. 즉, 범주들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대상들에 대해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진 않았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대상들에 대해 범주가 객관적 타당성을 지님을 따로 증명한다.

우리는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감성적인 직관의 형식을 공간·시간 표상에서 가지며, 현상의 잡다의 포착의 종합은 항상 이 형식들에 맞아야만 한다. (...) 그러나 공간과 시간은 단지 감성적 직관의 형식으로서뿐만 아니라, (잡다를 함유하는) 직관들 자체로서 그러므로 그 직관들 내의 잡다의 통일 규정과 함께 선험적으로 표상된다. (...) 따라서 지각조차도 그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모든 종합은 범주들 아래에 종속한다. 그리고 경험이란 연결된 지각들에 의한 인식이므로, 범주들은 바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고, 그러므로 또한 경험의 모든 대상에 선험적으로 타당하다.

(KrV:B160-161)

하지만 §24부터 §26까지 진행되는 칸트의 증명 전략은 경험적 표상들의 순수 직관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존을 전제했다. 특히 §26의 증명, 즉 “순수 지성개념들의 보편적으로 가능한 경험적 사용에 대한 초월적 연역”(KrV:B159)은 지성의 범주에 의해서야 시간과 공간이 잡다들의 통일을 갖춘 직관으로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일체의 경험적 표상들이 하나의 직관이자 감성의 형식이기도 한 시공간에 대해 의존적이라는 것로부터 결국 감각 잡다의 합성 역시 범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순수 지성개념들의 경험적 직관들에 대한 적용 역시 순수한 직관들의 매개

를 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KrV*:B147) 하지만 H4의 인정은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간이 그 자체만으로는 경험 대상의 가능조건이 될 수 없다는 귀결을 낳는다. 그런데 이처럼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간이 경험 대상의 가능조건인지가 의심스럽게 될 경우, §26의 증명은 효력을 잃고 만다. 즉, “우리의 감각들에 나타날 수만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단지 지성에서 선험적으로 생겨난 법칙들 아래에 종속해야만 하는가”(KrV:B160)를 밝히는 초월적 연역의 마지막 단계가 불투명해진다.

그렇다면 다음의 두 가지가 주어진 셈이다. 1) *MAN*에서의 경험적 공간에 대한 논의들은 H4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다. 2) H4의 인정은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마지막 단계(§26)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나는 칸트가 H4를 도입한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소가 덧붙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칸트가 실제로 『순수이성비판』의 §26에서의 논의를 의식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3) H4에 대한 칸트의 인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으며, 그와 더불어 *Op*의 성격이 급격히 변했다. 에테르의 현존 증명보다 시기상 앞서는 유고들에서 공간 개념은 칸트의 중심적인 논의 주제로 거론된 적이 없으며, 간혹 거론되더라도 *MAN*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Op*.21:310·459, 22:205·211) *MAN*에서의 논의와 차이가 있다면, 에테르의 진동이 모든 물질에게 응집력을 줌으로써 물체가 형성될 수 있게 해주고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간을 채우는 소재로 에테르가 거론된다는 것뿐이다.(*Op*.21:374·378) 그러나 아직까진 칸트가 H4에 대한 의식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에테르의 현존 증명 이전의 논의들에선 ‘순수 직관’, ‘직관의 형식’ 등의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⁴⁹⁾ 즉, 칸트는

49) ‘순수직관’이라는 표현은 글쓴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직관의 형식’이라는 표현은 *Op*.21:458에서 한번 등장할 뿐이다. (물론, 여기에서 글쓴이가 확인한 텍스트는 Förster와 Rosen에 의해 연대기적으로 재구성된 영역본 텍스트이다.) 그런데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간이 그 자체로는 경험에 대해 공허할 수 있다는 생각을 칸트가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앞서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뒤엎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Op*의 초반부에서 순수 직관, 직관의 형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 이르러서야 순수한 공간이 경험에 대해 공허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표현한다. “경험적으로 주어진 공간과 선험적으로 (순수 직관에서) 주어지는 공간 사이의 차이”(Op.21:550)

과연 에테르의 현존 증명이 끝난 이후 칸트의 관심사는 명백히 시공간(AA-BB), 순수직관(7번째 합본) 등으로 옮겨간다. 이런 관심사의 전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행’은 더 이상 자연철학적인 문제를 위한 것만으로 규정되지 않고 순수 직관으로부터 지각,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체계로 재규정된다는 것이다. “자연 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들로부터의 물리학으로의 이행에서, 지성은 (...) 선험적인 순수 직관의 공리들로부터 지각, 즉, 주관 안에서 의식과 함께하는 경험적 표상으로, 경험의 가능성(...)으로 나아간다.”(Op.22:503) 그런데 이 새로이 정식화된 이행의 문제는 앞서 내가 지적했었던 문제, 즉, 순수 직관으로서의 시공간의 통일적 표상을 가능하게 한 원리들이 동시에 어떻게 지각을 위한 원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당화의 문제와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직관들은 만약 그것들이 **순수하다면** 지각들이 (즉, 경험적인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감각들을 규정하는 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순수 직관들이 동시에 지각을 위한 원리들을, 즉, 세계물체[Weltkörper]의 인력을 줄 수 있는가?”⁵⁰⁾ (Op.22:434) 따라서 유작 후반부에서의 칸트의 관심사 전환으로부터도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26을 의식하고 있음이 유추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위의 세 요소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해석으로 Förster와 지향점은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다음의 해석이 제안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즉, Op의 초반부에서 칸트는 MAN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던 만큼 MAN의 여러 논의들을 재검토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칸트는 MAN에서의 경험적 공간에 대한 논의들로부터 H4,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간이 그 자체로는 경험에 대해 공허할 수 있다는 착상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나는 이런 칸트의 발상

식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반직관적으로 보인다.

50) 강조는 칸트 그 자신의 것.

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깐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칸트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로서는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 전략이, 특히 §26에서의 논의들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칸트는 §26과는 다른 방식으로 범주의 연역을 마무리지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도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도입했을 수 있으며, 에테르의 현존 증명 이후엔 초월적 감성학과 논리학에서의 자신의 논의들을 재검토하면서 말년의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검토와 재수정을 진행했을 수 있다. 그래서 *Op*에서의 칸트의 관심사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을 전후로 급변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Förster처럼 어느 순간 말년의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 전략이 불만족스럽다고 느꼈고, 에테르를 통해 경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지성의 범주에 의존함을 증명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Förster의 주장과는 달리 에테르의 현존 증명은 도식론 때문에 제시되었다기보다는 H4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순수이성비판』의 §26에서의 논증이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도입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내 해석대로라면 칸트가 에테르를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에 대해서도 토대로 간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즉, 에테르는 당초 H4를 근거로 요청되는 것이었는데, H4는 『순수이성비판』의 B판에서의 범주의 연역 전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칸트가 H4를 의식하면서 도입한 에테르 역시 연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지성의 잡다에 대한 종합·통일에 의해 생기는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에테르가 요청된 배경에는 범주의 연역에 관한 문제의식이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내 주장은 어디까지나 정황적인 요소들에 주목하여 개진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26에서의 논의를 더 이상 끝이곧대로 수용하지 않고 에테르를 통한 다른 전

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Op*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나아가 설령 칸트가 에테르라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음이 텍스트를 통해 승인될 수 있다고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에테르는 설령 그것의 현존이 선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객관이다. 즉, 그것의 존재 자체는 후험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지성은 개념들의 능력이다. 그런데 객관에 대한 인식이 잡다들에게 지성의 활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논의인 범주의 초월적 연역이 질료적인 객관에 의존한다는 것은 순환 아닌가? 즉, 칸트는 어떻게 『순수이성비판』의 §26에서와는 다른 방식의 연역 전략을 에테르를 수단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제 나는 이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로 넘어갈 것이다.

3. 에테르의 현존 증명과 범주의 초월적 연역

나는 이번 절에서 *Op*의 칸트가 §26에서의 논의를 더 이상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에테르를 통한 다른 논증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나는 에테르에 부여된 독특한 성격에 주목할 경우, 에테르의 현존 증명이 어떻게 §26과 동일한 결론을 주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답이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절에서 내가 주목하는 텍스트는 ‘자기정립이론’으로, 자기정립이론이란 경험적 자아의 자기인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관한 논의로 좁게는 7번째 합본에서 전개된 논의들만을 가리킨다.⁵¹⁾ 그리고 자기정립이론 자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진, 최소인 등에 의해 소개된 적이 있었다. 임상진의 경우 7번째 합본에서 다루어진 자기정립이론에서 칸트가 “비판기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해명하고 있으며⁵²⁾, 최소인은 7번째 합본에서 실린 자기정립이론을 독일 관념론의

51) Förster, 1993, p.xlii. 그리고 Förster, 2000, p.103.

52) 임상진, 『칸트의 『최후유고』에 나타난 경험의 가능성 개념』, 『철학사상』 제35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맥락에서 위치 지으려고 시도하고 있다.⁵³⁾ 물론, 이들의 시도는 충분히 유의미한 것이지만 본 논문은 자기정립이론을 이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한다. 즉, 나는 자기정립이론을 통해서 에테르의 현존 요청이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특정 단계, 즉 『순수이성 비판』의 §26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6의 논의를 일부 수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기정립이론은 Förster나 임상진이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순수이성 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순서를 의식하는 가운데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데,⁵⁴⁾ 이는 *OP*의 몇몇 논의들을 직접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자기정립이론의 제 1단계는 자신에 대한 한갓 의식으로 기술된다. 이 의식은 분석적인 것, 논리적인 것으로 묘사되며, 이 논리적 자기의식은 ‘나는 생각한다’라고도 표현된다. (*Op.*22:95 · 420) 다시 말해, 논리적 자기의식은 『순수이성비판』의 B판의 논의에 비추어 보자면, 나의 모든 표상들이 귀속되는 것으로 의식되는 자기 동일한 나, 순수한 통각이다. (*KrV*:B131-132) 그리고 논리적 자기의식의 상태는 단지 내가 있다는 것만을 의식하는 상태일 뿐, 나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규정은 결여된 상태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이다. 이 논리적 행위는 아직 명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술어를 결여하기 때문이다.” (*Op.*22:98) 그러나 이 논리적 자기의식 혹은 “직관에 주어진 이 표상들 모두가 나에게 속한다는” (*KrV*:B134) 의식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기의식을 전제한다. 모든 표상이 자기 동일한 나에게 속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합적 통일을, 즉, 표상들을 하나의 자기의식 안에서 결합하는 활동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Ibid.*). 즉, 논리적 자기의식은 근원적-종합적 통일 활동의 수행자로서의 통각을 전제한다. 물론, 통각의 근원적-종합적 통일 활동은 필경 직관의 잡다가 그 아래에 종속해야만 하는 인식의 제 1의 원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나에 대한 인식이 주어

권, 2010, p.143.

53) 최소인, 『칸트 『유작』에 나타난 절대 관념론의 맹아』, 『해결연구』 제8권, 1998, pp.445-447.

54) 임상진, 앞의 책, p.154. 그리고 Förster, 2000, pp.101-107.

지지 않는다. “내가 나의 현존재를 규정하는 방식”(KrV:B155) 혹은 감성의 잡다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이 단계에선 도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리적 자기의식은 “직관에서 주어진 잡다의 포착[Auffassung]의 활동은 아니지만 주관을 (...) 객관으로 만드는 자율성의 원칙”(Op.22:416)으로서 자기정립의 첫 번째 단계를 이룬다.

자기정립이론의 두 번째 단계에선 인식 주관이 자신을 외적 객관과 시공간적 관계를 맺는 객관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형식이 성립한다. “직관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사물[Ding]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 주관이 그 자신을 객관으로 만드는, 그 자신을 정립하는 표상력[Vorstellungskraft]의 행위[actus]이다.”(Op.22:88) 그런데 이런 인식 주관에 의한 순수직관으로서의 시공간 표상의 성립은 『순수이성비판』의 B판에선 형상적 종합,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의 장에서 다루어진 것이었다. 즉, 하나의 대상으로 표상되는 직관으로서의 공간 표상, 형식적 직관으로서의 공간은 지성의 종합·통일 활동을, “동일한 점에서 서로 수직인 세 선을 세워”(KrV:B154) 봄으로써 시공간 표상을 성립시키는 과정을 전제한다. 이 지성의 활동은 “통각의 통일에 맞춰 형식의 면에서 감각을 선험적으로 규정”(KrV:B152)하는 활동이었는데, 일체의 경험 대상의 주어짐에 앞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이라고 불렸다(Ibid). 따라서 자기정립이론의 두 번째 단계는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의 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7번째 합본에서 다루어진 자기정립이론은 순수 직관으로서의 시공간 표상의 성립,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소들의 성립으로 종결되지만, 이로써 자신에 대한 인식을 향한 도정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 『순수이성비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에 대한 인식은 결국 나 자신을 다른 물질적 객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질적 존재로 정립하는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립과 지각”(Op.22:466)의 관계, 혹은 “주관은 힘들의 합성[Zusammensetzung] 속에서 그 자신을 촉발하고 스스로 현상에서의 객관이 된”(Op.22:364)다는 것을 다룬 A-Z, AA-BB의 원고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정립이론에 포함될 수 있다.⁵⁵⁾ 그리고 칸트는 이 단계의 논의를 ‘도식론’이라

고 표현한다.(Op.22:377 · 343 · 491 · 494) 즉, 경험적 자기정립에 관한 논의들은 인식주관이 감각 잡다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합하는지를 보여주는 도식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Z, AA-BB까지도 포함하는 자기정립이론의 논의들을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면 다음의 표가 제시될 수 있다.

자기정립이론	순수이성비판
논리적 자기의식	통각의 분석적 통일, 종합적 통일(§16-§23)
순수한 자기정립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 형상적 종합(§24-25)
?	순수지성개념들의 경험적 사용에 대한 초월적 연역(§26)
경험적 자기정립	포착의 종합, 초월적 도식론

요컨대 자기정립이론은 비록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순수이성비판』과 다를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순서에 맞춰 재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표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순수이성비판』에서의 §26, 순수 잡다에 적용되는 범주가 왜 감각 잡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당화의 논의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자기정립이론의 어느 것에도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순수한 자기정립은 범주가 순수 잡다에 적용되어 직관으로서의 시공간 표상이 성립하는 과정을 다룬다. 반면, 경험적 자기정립은 범주가 감각 잡다에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범주가 감각 잡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도식론에 해당한다. 즉, 경험적 자기정립은 포착의 종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일 뿐, 포착의 종합이 범주의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까닭에 대한 정당화는 아니다.

세 개의 차원을 가진 공간에 대한 직관과 한 개의 차원을 가진

55) Förster 역시 A-Z, AA-BB의 논의 혹은 경험적인 자기인식의 성립단계를 포함하여 자기정립이론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Förster의 논의로는 Förster, 2000, pp.104-116을 참조하라.

시간에 대한 직관은 원칙으로서의 선험적 종합 명제들을 제공하지만 감각 객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자신을 (경험적인) 직관에 나타내는[*darbieten*] 포착 가능한 대상들이 아니고, 의식과 함께 하는 그들의 표상도 지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Op.22:413)

내가 보기엔 칸트 자신 역시 자기정립이론에서의 공백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며, 칸트는 이 공백을 위한 답으로 『순수이성비판』의 §26과는 다른 답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즉, 칸트는 순수한 자기정립에 관한 논의 중 순수한 시공 표상을 성립시키는 지성의 활동이 낳는 원칙들은 감각 객관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달리 말해, 범주가 순수한 표상들에 대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주가 감각 잡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 범주가 순수 직관으로서의 시공간 표상 성립의 가능조건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주가 감각 잡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이 정당화된다면, 순수 직관들이 제공하는 원칙이 감각 객관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칸트는 순수한 자기정립에서의 논의들만으로는 범주가 감각 표상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 까닭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한편, 위의 인용구로부터 칸트가 범주가 감각 표상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 까닭으로 『순수이성비판』의 §26과는 다른 방식의 답을 고려하고 있었음 역시 분명해 보인다. §26에서의 칸트의 정당화 전략은 순수 직관으로서의 시공간이 경험적 표상이 주어지기 위한 형식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시공간 표상이 경험적 표상이 주어지는 형식이기에 최종적으로는 “삼각형을 구성하는 바로 이 형식적 종합은 우리가 현상의 포착에서 그에 대한 경험 개념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그 종합과 전적으로 한 가지”(KrV:B271)가 된다. 그런데 §26에서의 칸트는 시공간 표상과 지각 표상 사이의 이질성에 대한 고민을, 시공간 표상은 감각 표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인용구에서 보이듯이 칸트는 이제 시공간 표상과 지각 표상 사이의 이질성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두 표상의 이질성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다면 이질성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던 『순수이성비판』의 §26의 전략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범주의 초월적 연역이 완수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동적인[bewegenden] 그리고 감각들을 촉발하는 물질의 힘들의 보편적 토대는 보편적이고 규칙적으로 퍼져 있는 세계물질[Weltstoff]인데, 그것의 상정 없이는 감각들의 외적 객관은 경험적으로 가능한 객관을 가질 수 없으며, 공간은 단지 하나의 관념[일 뿐일 것이고] 가능한 지각의 객관들의 현실적인[wirkliches] 전체가 아닐 것(...)[이다]. (Op.22:475-476)

그리고 칸트가 §26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순수한 공간 표상과 감각적인 표상 사이의 이질성 문제를 Op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는 경험적 자기정립이론에 관한 원고들에서 가져온 위의 인용구로부터 명확해 보인다. 즉, 에테르의 채움에 의해서야 관념에 불과한 순수한 공간은 감각 객관들에 대한 지식을 위한 것, 감각 객관들에 대한 지식의 가능조건이 될 수 있다.⁵⁶⁾ 달리 말해, 에테르는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

56) Op에서의 에테르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공간 표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에테르가 순수한 시간 표상이 여타의 경험적인 표상들에게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 같다. 가령 칸트는 “오로지 공간이 감각들의 객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지식이 경험적인 것이기에) 그것 안에서의 물질의 현상들은 가능하다. 빛[Licht]은 외적인 것에 관련하여 매개체[Mittel]가 되는 것처럼 보이며, 열[Wärme]은 내적인 것과 관련하여 [매개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Op.22:508)고 말한다. 그런데 에테르는 ‘광물질[Lichtstoff]’, ‘열소[Wärmstoff]’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에테르는 외감, 즉 외적인 감각 표상들이 공간 안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제시된 인용구는 에테르가 내적인 감각 표상들이 내감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혹은 시간이 내적인 감각 표상들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하겠다. 따라서 유작의 칸트는 비록 내감의 표상들과 에테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H4와 비슷한 전제를 시간 표상에 대해서도 견지

간을 지각 가능한 표상, 경험적 공간으로 실재화시킴으로써 공간이 외적인 경험 대상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게 해준다. 그런데 이처럼 순수 직관으로서의 공간이 외감의 표상들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순수이성비판』의 §26에서 등장했던 범주가 감각적인 표상들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짐을 증명하는 전략에서 핵심적인 전제 중 하나였다. 따라서 에테르라는 객관의 현존이 선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경우, H4로 인해 발생했던 순수한 공간 표상과 감각적 표상 사이의 이질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칸트가 에테르의 현존을 증명함으로써 §26과는 다른 전략을 모색했다는 내 주장은 자기정립이론을 통해서도 전거를 얻을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자기정립이론 역시 순수한 자기정립이론과 경험적 자기정립이론의 사이에 한 단계가 더 포함되어 있는 네 단계 이론으로 재구성될 수 있겠다. 즉, 순수한 자기정립의 과정 속에서 순수 직관으로서의 시공간 표상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순수 직관으로서의 시공간 표상에 대해 칸트는 여전히 그것이 감각 잡다들을 받아들이는 형식이라고, 경험 대상이 가지는 시공간적 위치 관계의 형식을 제공한다고도 말한다.(Op.22:435) 그러나 이 점이 순수 직관으로서의 시공간이 여타의 경험 대상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짐을 곧바로 보증하진 않는다. 혹은, 여타의 감각적 표상들이 시공간 표상이 부여하는 관계에 따라 서로 나란히,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래서 칸트는 단지 시간과 공간만을 직관의 형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재에 대한 시공간적인 규정 가능성이 더해진 감각적인 표상의 세 형식을 거론한다.(Op.22:440-441) 그런데 여타의 감각적 표상들의 위치가 규정될 수 있기 위해선 시공간이 에테르로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Op.22:550-551) 그래서 에테르 혹은 그것이 토대가 되는 “힘들의 개념이 반드시 그것들이 그 안에서 정립되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관계들의 개념에 선행해야만 한다.”(Op.22:436) 즉, 공간이 위치 관계의 형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에 따라 감각 잡다들이 공간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에테르

를 통해서야 가능하다.(Op.21:228) 그러므로 자기정립의 세 번째 단계로 에테르에 의해 공간이 채워지는 과정이 올 것이다.

물론, 자기정립의 세 번째 단계로 에테르에 의한 공간의 채워짐이 와야 한다는 착상 자체는 Förster가 개진한 적이 있었다.⁵⁷⁾ 그러나 Förster는 에테르에 의한 공간의 실체화가 범주의 초월적 연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나오는 의견을 달리한다. 즉, 나는 Op에서 칸트가 H4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순수이성비판』의 §26의 논의를 더 이상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에테르에 의한 공간의 실체화가 H4로 인해 §26에 대해 제기되었던 순수한 공간의 공허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Förster는 자기정립의 세 번째 단계로 오는 에테르에 의한 공간의 채워짐을 논할 때, 에테르의 개념이 도식화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⁵⁸⁾ 그러나 이런 Förster의 주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칸트가 도식론 이전에 이미 범주의 초월적 연역이 완수되었다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 따라서 나는 자기정립이론의 세 번째 단계로 에테르가 와야 하는 까닭에 관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해석이 Förster의 것보다 더 낫다고 본다.

하지만 설령 텍스트 내적인 근거를 통해 칸트가 §26과는 다른 방식의 범주의 연역 전략을 고려하고 있었고 그 전략의 중심에 에테르를 놓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절의 말미에서 언급했듯이 에테르는 그 자신 하나의 질료, 객관이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료, 객관에 의존하여 범주가 사물 인식의 필수조건임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 나는 칸트가 에테르에 대해 부여하는 독특한 존재론적 성격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Förster와 Friedman, Tuschling, 김재호의 에테르의 존재론적인 성격에 대한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즉, Förster는 에테르가 요청되는 존재자라는 점, 단독으로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자라는 점에서

57) Förster, 2000, p.105.

58) 위의 책, p.111.

신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에테르를 “비판기적인 의미에서의 초월적 이상”으로 간주한다.⁵⁹⁾ 반면, 에테르의 현존 요청의 배경으로 화학 혁명을 들고 있는 Friedman은 에테르의 구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Förster의 해석에 반대하면서 “초월적 이상과는 달리 에테르-연역의 객관은 하나의 현상이고 경험적 객관”이라고 주장한다.⁶⁰⁾ 한편, Tuschling과 김재호 역시 에테르가 질료, 객관이라는 점에 주로 주목하였으므로 Friedman과 거의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⁶¹⁾

그러나 나는 이들의 해석 중 어느 것도 에테르의 존재론적인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우선, 내가 보기에 Friedman, Tuschling, 김재호처럼 에테르를 단지 질료적인 것, 혹은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객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나는 우선 칸트가 단지 에테르라는 객관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에테르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논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칸트는 단지 에테르라는 객관에 대해서만 그것이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테르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것이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의 원리라고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에테르]의 개념은 물질의 모든 동적인 힘들의 선형적인 연결[Verknüpfung]의 토대인데, 그것 없이는 물질의 하나의 전체 속에 있는 잡다한 힘들의 관계들 속에서 어떠한 통일성[Einheit]도 생각될 수 없다.”(*Op.*21:229) 그런데 비판기의 관점에선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과 관련된 원리의 행사 주관은 사변이성이었으므로 에테르의 개념은 이성의 원리로도 간주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에테르]이 근거를 가진다면, 이성으로부터 하나의 관념으로서 선형적으로 생겨나야만[hervorgehen] 할 것이다.”(*Op.*22:552)

주의: 초월철학은 단지 하나의 완전한[vollständigen] 체계 안에 있는 선형적 종합 명제들의 복합체만을 포함하진 않으며, 오히려

59) 위의 책, p.91.

60) 앞의 책, Friedman, p.305.

61) 김재호, 2013, p.159. Tuschling, 앞의 책, pp.205-206.

개념들의 구성으로부터가 아니라 개념들에서 기인하는 그러한 명제들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그것[개념들의 구성으로부터 기인한 명제들을 포함하는 경우]은 수학이기 때문이다. 모든 곳을 채우는[allerfüllende], 모든 것을 투과하는[alldurchdringend], 동적인 물질의 개념은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간이 지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따라서 객관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이미 놓여 있다.
(Op.22:420-421)

초월적인 명제들은 결코 개념들의 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개념들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주어진다. 이런 초월적 명제들은 한낱 선험적으로 직관적으로 표상될 수 없는 것(즉 지각들)에 대한 일정한 종합적 통일이 그것을 좇아 경험적으로 구해져야 하는 규칙만을 포함한다.
(KrV:B748-749)

한편, 나는 칸트가 에테르를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의 토대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었다. 그리고 칸트는 에테르의 개념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순수이성비판』에 따르면 초월철학은 수학적인 명제들처럼 개념들의 구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명제들이 아니라 개념에서 기인하는 초월적 명제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제시된 인용문에서 칸트는 초월철학이 개념에서 기인하는 초월적 명제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곧이어 에테르의 개념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에테르의 개념으로부터 초월적 명제들이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개념에서 기인하는 선험적·초월적 명제들은 『순수이성비판』에 따르면 감각 잡다들에 대한 종합의 규칙들을 포함하고, 이 규칙들에 의거해서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이 달성되므로, 칸트는 에테르의 개념이 경험의 분배적 통일성의 토대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따라서 에테르의 개념은 한편으론 이성의 원리이지만, 지성의 원리, “수단”이다.(Op.22:325)

우리는 단지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에, 시공간 안에서의 직관의 잡다의 합성[Zusammensetzung]에, 그리고 우리가 관찰자[Zuschauer]로서 동시에 창작자[Urheber]로서 스스로 만들어낸[machen]

하나의 객관[Object]과 관련된다. (Op.22:421)

그러나 공간 (그리고 시간) 안에서의 사물[Ding]들에 대한 현상은 두 가지이다. 1. 우리가 (선험적으로) 공간 안에 스스로 들여놓는[hineinlegen],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객관들에 대한 것, 2. 우리에게 (후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어지는[gegeben], 그리고 물리학적인 것. 후자는 직접적 현상[directe Erscheinung]이고 전자는 간접적 [현상], 즉, 현상의 현상[Erscheinung einer Erscheinung]이다. (Op.22:340)

생각하는 주관은 또한 스스로 시공간 안에서의 가능한 경험의 대상[Gegenstand]으로서의 세계[Welt]를 창조한다[schafft]. 이 대상은 오로지 하나뿐인 세계이다-운동력들은, 즉, 인력과 척력은 이것 안에 놓이는데, 이것들 없이는 어떠한 지각도 없을 것이다(...). (Op.21:23)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론 에테르의 개념을, 다른 한편으론 순수한 공간을 채우는 에테르라는 객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양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칸트가 에테르의 현존 요청 이후 여러 부분들에서 경험의 가능성을 위해 인식 주관이 만들어낸 객관을 언급한다는 점이다.⁶²⁾ 그리고 칸트는 *Op*의 여러 부분들에서 에테르가 인식 주관에 의해 만들어진 객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칸트는 에테르를 언급할 때 종종 세계물질[Weltstoff]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⁶³⁾ 원고의 후반부에서 경험세계의 절대적 총체성을 가진 객관으로서의 ‘세계[Welt]’라는 개념이 등장한다.⁶⁴⁾ 그런데 에테르는 단독으로 경험세계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자였고 “절대적 전체”(Op.21:601-602)로도 간주되었다.

62) Op.22:317 · 319 · 340 · 454 등을 참조하라.

63) 가령 Op.21:217, 22:475-476.

64) “세계는 감각 가능한 것들의 전체를 의미한다.”(Op.21:22) “세계는 하나의 공간과 하나의 시간 안에서의 대상들의 복합체(complexus)이다.”(Op.21:24) 그밖에도 Op.21:17 · 20 · 23 등을 참조하라.

따라서 ‘에테르’와 ‘세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실제로 우리는 가령 “만약 *세계*들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이것들은 오로지 덩어리들(Massen)일 뿐이다. 즉, 무한하게 퍼져있으면서 공간을 점유하는 물질의 제한된 부분들일 뿐”(Op.21:35)이라는 표현에서도 에테르와 세계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Förster와 Tuschling 역시 세계와 에테르라는 개념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다.⁶⁵⁾ 그런데 제시된 인용구에서처럼 칸트는 세계에 관해 그것이 인식 주관이 창조한 가능한 경험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칸트는 Op의 다른 부분에서는 물리학의 대상인 감각 객관에는 두 유형의 객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유기체와 유기체를 거론한다.(Op.22:454-455,457) 그런데 칸트는 “근원적으로 운동하는 질료”(Op.22:457)인 에테르를 물리학에서 다룰 수 있는 세 번째 객관으로 따로 언급함으로써 에테르가 감각 객관과는 다른 유형의 객관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실재적인 존재자라는 이상은 비록 순전한 표상이기는 하지만, 첫째로 실재화되고, 다시 말해 객관으로 되고, 이어서 실체화되고, 마침내 통일성의 완성을 위한 이성의 자연스런 전진에 의해, 우리가 곧 언급하게 되듯이, 심지어는 인격화된다. 경험의 규제적 통일은 현상들에 (곧, 감성에만) 의거하지 않고, 지성에 의한 (통각에서의) 감성적 잡다의 연결에 의거하고, 그러니까 최고 실재성의 통일과 모든 사물들이 일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음(가능함)은, 그러니까 한 예지자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KrV:B611)

나아가 에테르가 인식 주관이 창조한 객관임은 이미 앞서 지적되었던 초월적 이상으로서의 신과 에테르의 유사성으로부터도 드러날 수

65) “세계는 모든 경험적 객관들과 감각들을 촉발하는 힘들의 총체성이다-달리 말해, 이른 합본들에서의 에테르 개념의 계승물(successor)이다.” Förster, 2000, p.162. 한편, Tuschling 역시 가능한 경험의 객관들의 절대적 총체성으로서의 세계와 세계 물질로서의 에테르가 서로 대응하는 개념임을 지적한다. Tuschling, 앞의 책, p.208.

있어 보인다. 즉,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최고실재성이라는 개념을 실재화·실체화할 경우, 신이라는 객관의 속성을 개념으로부터 분석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었다.(*KrV*:B606) 다시 말해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신이라는 객관은 이성인 환상 속에서 개념으로부터 만들어낸 객관이기 때문에 그것의 속성을 개념으로부터 분석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Förster 등이 지적했듯이 칸트는 에테르의 속성을 개념으로부터 분석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⁶⁶⁾(*Op*.21:584) 에테르에 대한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초월적 이상론의 논의에 비추어보면,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위해 생각된 유일 존재자의 개념으로부터 에테르라는 객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테르라는 객관의 속성이 개념으로부터 분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실제로 에테르의 현존을 증명하는 단계에서 이미 에테르라는 객관과 에테르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칸트는 한편으로는 에테르라는 개념이, 다른 한편으로는 에테르라는 객관이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열소는 현존하는데, 그것의 개념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귀속시켰던 속성[Attribute]들과 함께) 경험의 전체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Op*.22:554) “만약 가능한 경험 전체의 통일성이 그러한 하나의 질료의 현존[Existenz]에 (그것의 진술된 바로 그 속성[Eigenschaft]들과 함께) 근거하고[beruht] 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그것의 현실성[Wirklichkeit] 역시 증명된 것(...)[이다.]”(Op.22:550) 이런 칸트의 에테르의 개념과 객관 사이의 혼동은 그가 에테르가 개념에서 만들어진 객관이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칸트는 에테르의 실재성은 이성의 힘에 의해서만 확인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Op.21:219)

이처럼 에테르가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객관이 아니라 인식 주관에 의해 개념으로부터 선験적으로 창조되는 객관이라면, 에테르를 비판기

66) Förster. 2000, p.97.

적인 의미에서 질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에테르의 존재론적인 지위를 Friedman, Tuschling, 김재호처럼 단지 질료적인 것, 혹은 경험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객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오히려 에테르에 대한 칸트의 서술들은 이중적인 측면을 보인다. 즉, 칸트는 에테르를 한편으론 관념 바깥에 있는 존재자(*Op*.21:559)로, 다른 한편으로는 관념 안에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Op*.21:553) 또, 칸트는 에테르를 그것의 현존이 증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사상[Gedankending] (ens rationis)”(*Op*.21:231)이라는 표현 역시 사용한다. 그런데 에테르가 비판기적인 의미에서 질료 혹은 객관이라면 그것은 관념 안의 사상으로 간주될 순 없을 것이다.

칸트는 말한다: “세계는 우리 바깥에 있는 대상들의 (...) 존재이다.”(*Op*.21:39.3-4) 동시에, 그는 설명하길: “우리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는 나 자신의 산물이다.”(22:82, *Op*.189).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양극성 혹은 양면성의 측면을 이미 칸트의 에테르에 대한 논의에서 발견한다. (...) 우리는 그것들을 선험적인 사상[thought]으로, 그러나 동시에, 주어진[given]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22:377, *Op*.119).⁶⁷⁾

한편, 에테르를 초월적 이상으로 바라보는 Förster의 관점은 Friedman 등의 관점보다는 나아 보인다. 선험적으로 만들어진 객관이라는 착상의 근원 역시 에테르에 대한 칸트의 다른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순수 이성비판』에서의 초월적 이상론으로 소급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Förster 역시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에테르가 주관적으로 생각되는 것으로서의 특징과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Förster는 이런 에테르의 이중적인 특징을 지적하면서도 에테르를 비판기적인 의미에서의 초월적 이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멈춘다. “나는 에테르가 비판기적인 의미에서의 초월적 이상으로 가장 잘 이해될 것이라고 제안한다.”⁶⁸⁾ 그러나 나

67) 위의 책, p.172.

는 Förster가 에테르의 이중적인 특징을 지적했다면, 에테르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 오히려 더 강한 주장을 개진했어야 한다고 본다. 즉, 우리가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객관이라는 착상의 연원을 구태여 찾으려고 한다면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신에 대한 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신이라는 존재자를 우리가 직접 개념으로부터 창조한다거나 고안한다는 생각 자체가 결코 전면적인 화두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초월적 이상은 결코 ‘현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칸트는 앞서 인용했듯이 에테르를 인식 주관이 만들어낸 현상,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였다. (*Op.* 21:23, 22:340) 따라서 Förster 역시 에테르의 존재론적 지위를 정확히 묘사한 것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에테르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기존의 해석자들의 불충분한 해석은 주관으로부터 만들어진 객관으로서의 에테르의 이중적인 측면이 비판기의 전제들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인한 것 같다. 즉, 비판기의 칸트는 질료와 형식, 객관과 주관의 개념, 나아가 주관의 구성적인 활동에 의해 주어지는 대상 인식과 규제적인 활동에 의해 주어지는 특수 존재자에 대한 이념을 엄격히 구분했었다. 그러나 에테르는 주관으로부터 창조된 객관이기 때문에 비판기의 관점에선 대립되는 두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그렇다면 비판기의 용어로 에테르의 존재론적인 지위를 묘사하려는 시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테르를 단지 질료·객관으로 간주한 김재호, Tuschling, Friedman의 관점이나 에테르를 이성에 의해 고안되는 순전한 이상으로 간주하는 Förster의 관점 모두 에테르를 정확하게 묘사하기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나는 에테르의 존재론적 지위를 보다 명료하게 묘사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다른 철학자들의 용어를 가져와보는 시도가 더 유의미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본 논문에선 에테르의 존재론적인 지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이하의 논의에서

68) Förster, 2000, p.91.

에테르가 정말로 개념으로부터 창조된 객관이라면, H4로부터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에테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해 보인다는 주장만을 개진하겠다.

『순수이성비판』의 §26에서의 논증은 일체의 감각 표상들의 시공간 표상에 대한 의존을 전제했었다. 칸트는 1) 일체의 경험적 표상들은 시공간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시공간 표상에 의존하는데, 2) 그 자체로 통일성을 가진 것으로 표상되는 직관으로서의 순수한 시공간은 범주에 의존함을 근거로 3) 일체의 경험적 표상들은 범주에 의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H4를 받아들이면 순수한 공간 표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경험의 가능조건이 될 수 없다. 즉, 일체의 경험적 표상들이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공간은 하나의 객관이자 질료인 경험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경험적 공간은 비판기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의 객관, 질료라는 점에서 후험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소여들에 의존하는 인식에 대해 지성이 권리를 갖는지의 여부가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과제였다. 그러므로 경험적 공간이 범주에 의존함을 무작정 전제로 도입할 경우 순환 논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H4를 받아들이면 어느 공간을 통해서도 §26의 논증이 완성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물론, 재차 강조하지만 본 논문은 칸트가 H4를 인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러니깐 해석자로서의 우리들 역시 H4를 칸트의 철학 체계의 진정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H4를 인정했다면 범주의 초월적 연역은 다른 방식의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전략은 비판기의 관점을 위배하는 것에 있다. 즉, H4를 인정했다면 제시된 딜레마를 탈출하는 방법은 경험적 공간에 의존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경험적 공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던 까닭은 경험적인 공간이 하나의 객관, 질료이기 때문에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있었다. 그렇다면 비판기의 친숙한 전제 중 하나를 위배하면, 모든 객관·질료적인 것은 반드시 감각을 통해 후험적으로 주어진다는 전제를 위배하면 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다. 즉, 모든 객관·질료적인 것

이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질료적인 것은 선험적으로 인식 주관 자신에 의해 창조된다. 그리고 여타의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소여들에 대한 경험의 가능성이 이 객관에 의존하고, 이 객관의 주어짐이 지성에 의존한다면 §26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논증전략은 지성의 활동과 경험적인 표상의 주어짐, 양자에 동시에 매개·결부되어 있는 무엇인가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26의 전략의 큰 틀만큼은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가 『순수이성비판』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상했다고 보는 Förster의 해석보다는 온건하다.

우리는 직관의 자료들[data]을 감각 가능한 표상[Sinnenvorstellung]들로부터 (인상[Eindruck]으로부터도 [경험적인] 개념으로부터도) 얻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통해 인식이 짜여질[gewebt] 수 있는 자료들을 (...) 처음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즉, 인력, 시공간 안에서의 그것의 법칙[Gesetz]들과 규정[Bestimmung]들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세계를 알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것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스스로 지어내야만[zimmern] 한다. (Op.21:41)

그런데 칸트는 Op에서 모든 객관·질료적인 것은 후험적으로 주어진다는 전제를 정말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인식 저변의 최초의 자료는 경험이 아니라 인간 그 자신에 의해 제공된다. 나아가 앞서 인용했듯이 칸트는 Op에서 인식 주관이 스스로 창조한 객관이 존재한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에테르라는 객관은 비판기의 이 전제를 어겼을 때 가능한 전략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정확히 만족한다. 즉, 에테르는 개념에서 창조된 객관이기에, 여타 감각의 객관들처럼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에테르는 순수한 공간 표상을 채움으로써 공간을 객관·대상으로 만들며, 일체의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표상들이 공간적 위치 관계를 가진 것으로 주어지기 위해선 에테르에게 의존해야만 한다. 나아가 에테르는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위해 생각될 수 있는 유일 존재자의 개념으로부터 그것의 속성들이 범주에 따라 분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즉, 에테르라는 객관은 어떤 의미에서 범주·지성의 활동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이런 성질들을 갖춘 객관으로서의 에테

르가 실제로 현존함이 선험적으로 증명된다면, 범주에 의해서야 사물 인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H4로 인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에테르가 어떻게 『순수이성비판』에서의 §26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체의 감각적인 대상들에 대한 인식이 지성의 활동, 범주에 의존해야만 함을 증명하는 작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런 답이 주어질 수 있다. 즉, 그것은 바로 에테르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가 순수한 시공간 표상에 대해 부여했던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에테르는 비록 그것의 현존에 대한 증명 이 문제시되는 객관적인 했지만 후험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감각 표상들이 그것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순수한 시공간 표상이 지성의 활동에 일정 부분 의존했던 것처럼 에테르라는 객관 역시 개념 혹은 범주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에테르는 순수한 시공간 표상의 대용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자기정립이론에서 에테르에 대한 논의들이 순서상 §26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 주장에 따라 에테르가 개념에서 창조된 객관임에 주목할 경우, 수수께끼처럼 보였던 *Op*의 여러 구절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즉, 에테르는 개념으로부터 창조된 객관이기에, 단지 에테르라는 존재자뿐만 아니라 에테르가 그로부터 창조되는 에테르의 개념도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의 원리이다. (*Op*.21:229) 또한 지성의 활동 역시 에테르 혹은 그것의 개념에 의존하기에 『순수이성비판』과는 다르게 지성이 표상의 분배적 통일성뿐만 아니라 집합적 통일성까지도 이루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후자[경험의 집합적 통일]는 (지각의 모음에 의해) 파편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종합적인 것으로, 지성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만 한다.” (*Op*.22:611) 나아가 처음에는 에테르라는 주관 독립적인 객관의 현존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행의 계획 역시 인식 주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관 스스로가 물질의 힘들의 하나의 전체를 생각하는 한에서, 주관 안에서의 지성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야만” (*Op*.21:589)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성의 활동은 에테르의 개념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에테르에 의해서야 “모든 가능한 경험 일반의 분

배적 통일성의 관념이 그것의 집합적 통일성과 한 개념 안에서 일치”(Op.21:552)한다거나 “이 집합적 통일성의 객관[과] 힘들의 전체의 관념이 (...) 모든 가능한 경험 대상들에 대한 모든 분배적 규정의 토대”(Op.21:582)라는 주장 역시 더는 낯설지 않게 된다.

4. 에테르의 현존 증명과 초월철학의 재정식화

이 절에서 나는 칸트가 시도했던 초월철학에 대한 재정식화를 간략하게 다룸으로써 본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3절에서 나는 자기정립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칸트가 실제로 『순수이성비판』의 §26의 논의를 에테르를 통한 공간의 채움이 포함되는 형태로 수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나는 에테르를 인식 주관이 스스로 만들어낸 객관으로 간주할 경우, 에테르를 통해 §26의 결론, 일체의 감각적인 표상은 범주에 의존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나는 에테르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이상으로서의 신에 대한 논의와 흡사함을 지적했었다. 즉, 에테르는 신처럼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존재자로 간주되고, 여타의 경험 대상들이 갖는 속성의 부정에 해당하는 속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은 얼마나 타당한가? 나는 이번 절에서 앞선 절들의 논의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귀결을 칸트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즉, 나는 칸트가 실제로 지성이 이성에 의존한다는 관점을 초월철학의 재정식화 과정에서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3절에서의 논의들에 전거를 제시하고, 에테르의 현존 요청이 초월철학에 대한 칸트의 Op에서의 재정식화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순수 이성의 모든 철학의 최대의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효용은 단지 소극적인 것이다. 순수 이성의 철학은 곧 기관으로서 확장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으로서 한계규정을 위해 기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 대신에 단지 착오들을 방지하는 조용한

공적을 갖기 때문이다. (...) 순수이성은 그에게 커다란 관심을 이 끌어오는 대상들을 예감한다. 이성온 이것들에 다가서기 위해 순전한 사변의 길에 들어선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성에서 달아난다.

(*KrV*:B823-824)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사변이성을 “원리들 아래에서 지성규칙들을 통일하는 능력”(KrV:B359)으로 규정했었다. 즉, 비판기의 관점에서 사변이성은 지성 혹은 지성에 의해 성립한 인식 산물들로부터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지성에 후행한다고 볼 수 있었다. 물론, 사변이성은 곧이어 지성의 범주가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영역을 뛰어넘어 초험적인 영역으로까지 비약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무조건적인 것들에 대한 사변이성의 사유는 지성에 의해 정초된 인식 내용들을 체계화하는 규제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 그 무조건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될 경우 허위에 빠지고 말았다. 따라서 이성은 그것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본령에 있어서 결코 지성의 영역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다름 아니라 경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의 확장을 약속하는 듯이 보였던 순수 이성이,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규제적 원리들 외에는 아무것도 함유하지 않는다.”(KrV:B729)

그런데 나는 3절에서 칸트가 *Op*에서 『순수이성비판』의 §26과는 다른 방식으로, 에테르를 통해서 경험적 대상들에 대한 인식이 범주에 의존함을 보여주하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칸트가 자기정립이론에서 시공간의 채움을 통해 감각의 표상들의 시공간적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간주했었던 에테르는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 존재자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초월적 이상과 유사했다. 실제로 초월철학을 재규정하는 칸트는 에테르와 유사한 개념인 세계에 대해 이상, 최대치로서의 관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Op*.21:35) 나아가 나는 에테르의 존재론적 특징, 즉 주관으로부터 창조된 객관에 대한 착상 역시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이상론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었

다. 그리고 나는 칸트가 에테르의 개념 혹은 에테르를 이성의 원리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Op.22:552) 그런데 칸트가 이처럼 이성의 표상으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에테르에 의존하여 『순수이성비판』의 §26과는 다른 논증 전략을 통해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이는 결국 Op에서의 칸트는 이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지성이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대상들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할 수 없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초월철학은 특히 비판기의 관점에 따르면 “순수 이성 비판의 결실로서 (...) 모든 순수한 이성 인식들과 이것의 원리들, 말하자면 이성이 그것을 가지고 비로소 경험적 인식들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인 개념들과 원칙들을 내용으로 갖는 것”⁶⁹⁾이었다. 즉, 초월철학은 주관의 범주가 경험적인 인식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경험이라는 한계를 넘어가려는 시도를 변증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성과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 즉, “우리에게는 오직 가능한 경험의 대상에 대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선험적 인식도 가능하지가 않다”(KrV:B166)는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칸트의 논증은 어디까지나 사변이성의 능력에 대한 호소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 주장에 따르면 칸트는 Op에서 사변이성의 능력에 호소해 지성이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대상들을 인식하는 권리를 입증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초월철학, 경험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인 체계에 대한 규정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고, 그 초월철학은 이성과 지성의 관계에 대해 비판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관념들의 이 크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존재자들의 총체성 [All]은 자기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주어진 개념이다. 나는 나의 사유의 객관들을 가져야만 하며 그들을 포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의식할 수 없을

69) 백종현, 『시대와의 대화: 칸트와 헤겔의 철학』, 아카넷, 2010, p.66.

것이다(cogito, sum: 이것이 “ergo”로 읽혀질 수 없다.) 그것은 autonomia rationis purae인데, 왜냐하면 나는 그것 없이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대해 아는 것 없이, 주어진 직관을 통해서도 사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Op.21:82)

그리고 우리는 칸트가 실제로 초월철학을 재규정하는 가운데 이성과 지성의 관계를 비판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칸트는 사변이성의 최대치로서의 관념 없이는 존재하는 객관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신을 존재하는 객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기정립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성에 의한 잡다의 포착을, 감각 잡다의 종합·통일 활동을 요구했었다. 그렇다면 인용구에서의 칸트의 발언은 결국 사변이성의 관념 혹은 이상이 지성의 종합·통일 활동의 전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칸트는 “그것[초월철학]은 원칙들로서의 개념들뿐만 아니라, 이성을 통해 형식들이 제공되는 관념들을 선형적으로 근거 지운다. 이 형식들은 개념들로부터의 종합적 지식을 주관에게 제공한다”(Op.21:82)고 말한다.⁷⁰⁾ 그리고 칸트는 지성의 활동의 전제가 되는 사변이성의 활동이 존재자들의 총체성, 즉, 집합적 통일성과 관련하여 주어진다고 이해한다.

초월철학은 모든 주어진[gegebenen] 객관들과는 독립적으로 객관들을 스스로 창조[schafft]하고 존재자[Wesen]들의 총체성[All]로서의 하나의 필연적으로 규정된 전체를 이성에게 인계하는[liefern] 관념들의 체계이다. (Op.21:84)

초월철학은 관념들의 절대적 전체(체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즉각적으로 객관들에게로 (ens summum, summa intelligentia, etc.),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경험의 가능성을 [위해] 객관으로서 순수이성에 의해 요청되는 것들로 인도된다. (Op.21:80)

70) 강조는 칸트 그 자신의 것이다.

한편, 나는 3절에서 에테르에 의존해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26을 보완하는 작업에 있어, 에테르가 인식 주관에 의해 창조된 객관이려면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객관들에 대한 인식이 범주에 의존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었다. 그리고 이처럼 인식 주관에 의해 창조된 객관으로 간주되는 에테르는 초월적 이상, 즉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을 단독으로 가능하게 하는 유일 존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칸트는 *Op*에서 초월철학을 존재자들의 총체성의 체계로, 주어지는 객관과는 독립적으로 인식 주관이 스스로 창조하는 객관들에 관한 관념의 체계로도 재규정한다. 따라서 3절에서의 내 주장의 핵심적인 전제, 즉, 칸트가 *Op*에서 인식 주관에 의해 창조된 객관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둔다는 점은 초월철학에 대한 칸트의 재정식화로부터도 전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초월철학은 표상의 절대적 총체성과 연관되는 사변이성의 체계로 규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의 가능성을 위한 체계로 간주된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관념들 역시 “순수이성을 통해 선험적으로 만들어지는, 한갓 주관적인 사상들로서 (...) 대상들에 대한 지식에 선행하는”(Op.21:51) 표상들로 규정한다.

그러한 존재자[신]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바깥에서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는 없다. (Op.22:55)

이성은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객관들을 창조한다.⁷¹⁾ 그러므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신을 가진다. (Op.21:83)

한편, 말년 칸트의 급진적인 사유 실험, 즉 모든 객관이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착상은 이제 순수 이성의 또 다른 요청, 신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초월철학의 재정식화와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를 불러온다. 즉, 3절에서 나는 에테르가 개념으로부터 창조된 객관이라는 칸트의 착상은 그 근원에 있어 『순수이성비판』의 초

71) ‘schaft’를 ‘schafft’로 고쳐 읽음.

월적 이상에 관한 논의로 소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칸트는 이제 신이라는 존재자에 대해서도 개념으로부터 창조된 객관이라는 착상을 분명하게 적용하기 시작한다. 즉, 신은 인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존재자이지만 최고선의 실현이라는 목적 바깥에서, 인간 바깥에서도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는 없다. 달리 말해, 신 또한 에테르처럼 이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한 객관의 일종이다. “(...) 우리는 스스로 신을 만든다.”(*Op.*21:51) 그래서 신에 대한 칸트의 기술 역시 에테르에 대한 기술처럼 이중적인 면모를 보인다. 즉, 신은 때로는 관념 안에만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만(*Op.*21:145), 때로는 인간 바깥에서 명령하는 존재자로 간주된다(*Op.*22:127) 즉, 칸트는 신과 에테르 모두에 대해 개념으로부터 창조되는 객관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양자 모두 (...) 최대치를[Maximum]를, 그러므로 절대적 개별자[Einzelnnes](unicum)를 표상한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오로지 하나의 신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나의 사유들 바깥에 세계가 있다면 (...), 오로지 하나의 세계(universum)만이 생각될 수 있다.
(*Op.*21:35)

신 그리고 세계는 (...) 두 이중적인 존재자들이며, 분석적인 통일성 속에 있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초월철학의 원리들에 따라서 종합적인 통일성 속에서 생각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결합은 실재성[Realität]을 획득할 수 있는가?
(*Op.*21.22)

신, 세계, 그리고 창조자[Weltshöpfer](architectus). 그러나 후자는 하나의 기계적으로 활동하는 원칙인 데미우르고스[Demiurgus]가 아니다.
(*Op.*21:34)

신, 세계, 그리고 나: 그들을 연결하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사유하는 존재자.
(*Op.*21:36)

그리고 칸트는 신과 에테르 혹은 에테르와 대응되는 개념인 세계와 신 모두 개념들로부터 창조된 객관임에 착안하여 『판단력 비판』에서의

유명한 질문, 실천이성의 예지계와 이론이성의 현상계 사이에 어떻게 교량을 놓을 수 있는지(KU:V175-176)에 관해서도 다른 답을 내린다. 즉, 『판단력 비판』에서의 칸트의 답은 반성적 판단력의 힘에 있었다.(KU:V178-179) 그러나 이제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의 두 세계 사이의 교량을 놓는 문제를 각각의 세계에서의 집합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절대적 개별자들, 즉 예지계의 신과 감성계의 세계·에테르 사이에 교량을 놓는 문제로 바꾼다.(Op.21:17) 그리고 칸트는 이제 감성적인 존재자임과 동시에 윤리적인 실천의 주체이기도 한 인간이 신과 세계라는 존재자의 창조자이기에, 신과 세계는 동일한 존재자일 수 없지만 인간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칸트는 스스로의 초월철학을 거꾸로 세워진 스피노자주의로 정식화한다. “스피노자가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 안에서 직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Op.22:59) “인간의 영혼은 스피노자의 신이다.”(Op.21:99) 즉, 신 안에서 모든 것을 본 스피노자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혼동했지만, 하나의 존재자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초월철학의 과거형이다. “셸링, 스피노자, 리히텐베르크 등에 의한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 말하자면, 세 개의 차원: [초월적 관념론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Op.21:54)

상호적으로 연관된 관념들 속에서의 초월철학의 최고 입지점 [Standpunkt]. 신 그리고 세계. 그들은 모두 (경험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선험적으로) 생각되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관념적 직관[idealer Anschauung]들의 체계의 토대를 위한 실재적인 관계 안에 있다. (Op.21:35)

관념들은 개념들이 아니라 순수한 직관들이며, 논변적인 [discursive] 표상이 아니라 직관적인[intuitive] 표상들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의 그러한 객관만이 있기 때문이다. (Op.21:79)

나아가 칸트가 지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의 활동, 『순수이성비판』과는 다른 사변 이성의 기능을 염두에 두었음은 초월적 이상으

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두 표상, 즉 신과 세계에 대한 칸트의 서술들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즉,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신, 영혼 등 이성의 초험적 표상들에 대해서는 직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초험적인 대상들은 실재적인 관계 안에 있다고 간주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칸트는 신, 세계 등에 대해서 단순히 개념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수한 직관, 관념적인 직관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다. 즉, 용어상의 착종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게 직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비록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직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긴 했지만, 결국 직관은 대상 혹은 대상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표상으로 간주되었고⁷²⁾, 특히 순수 직관은 시공간형식에서처럼 대상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신, 세계와 같은 이성의 이상들에 대해 칸트가 순수직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칸트가 이성의 어떤 활동들은 객관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칸트가 에테르에 대해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3절에서 지적된 특징들은 새로이 정식화된 초월철학의 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칸트가 새로이 정식화한 초월철학의 체계는 에테르의 현존 증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식 주관이 스스로 초월적 이상으로서의 특징을 갖는 객관을 창조하는 과정을, 즉 지성의 활동에 앞서는 이성의 활동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칸트는 이처럼 초월철학을 이성의 체계로 재규정하는 과정에서의 사변이성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논의들, 변증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에테르와 같은 사변이성의 산물이 주관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면,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논의를 염두에 둔다면 결국 인간의 인식은 하나의 비약, 가상, 허위에 기초한

72) 칸트의 직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관련해서는 앞의 책, 『칸트 사전』, pp.394-395 참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신, 세계 등의 관념은 결코 허위, 가상이 아님을 강조한다(*Op*.21:29). 오히려 칸트는 객관에 대한 인식이 기초하는 세계 등의 이상이 인간이 직접 창조해낸 객관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평하기도 한다. “만약 (나 자신 혼자만이 세계인) 관념론적 체계만이 우리에게 의해 생각 가능한 유일한 것이라면 어떠한가? 과학은 그를 통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현상들의 합법칙적인 연결뿐이다.”(*Op*.21:88) 오히려 인식 주관 스스로에 의한 객관의 창조는 초월철학 자체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인식 주관인 “우리는 관찰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창조자로서 스스로를 만든다.”(*Op*.22:421)

물론, 사변 이성에 대한 칸트의 근본적인 관점 변화는 결국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의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지성과 이성 모두의 원리로 간주되는 에테르 혹은 그것의 개념에 대해서도, 칸트는 지성과 이성이 각각 어떤 관점에서 개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진 않는다. 그리고 칸트는 그가 *Op*에서의 논의들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증거들을 남겨두지 않았다.⁷³⁾ 다만 나는 이런 해석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의 주장이 나름의 설득력을 얻었길 기대한다. 즉, 나는 2절에서 칸트가 *Op*에서 H4, 즉 순수한 공간은 그 자체로는 공허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MAN*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전제는 『순수이성비판』의 §26의 논증을 완성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나는 칸트가 에테르의 현존을 통해 §26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각적인 대상들에 대한 인식이 범주에 의존함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3절에서 나는 자기정립이론을 통해 칸트가 실제로 에테르에 의한 공간의 채워짐을 도입함으로써 H4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나는 이처럼 하나의 객관에 의해 칸트가 범주의 연역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

73) Förster, 1993, pp.xvi-xvii.

이는 시도는 에테르를 인식 주관으로부터 만들어진 객관으로 간주할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번 절에서 앞선 절들에서 논의를 종합할 경우 나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귀결, 즉 이성의 활동이 지성의 활동에 대해 앞선다는 주장을 칸트가 실제로 초월적 철학을 재정식화하는 과정에서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본 논문에서의 주장대로라면 에테르의 현존 요청은 단지 자연철학적인 문제의식만을 배경으로 하진 않은 셈이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순수이성비판』의 중심 문제들, 예컨대 시공간에 대한 문제, 지성과 이성이 경험 혹은 인식에 대해 갖는 권리의 문제 등이 배경적인 문제의식들로 깔려 있었던 것이다.

나가며

『순수이성비판』 B판의 머리말에서 칸트는 이성의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이 싸움터가 된 것을 개탄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을, 인식이 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식 능력의 성질을 따른다고 가정해볼 것을 제안한다.(*KrV*:BXV-XVII) 이 제안으로부터 초월철학, 대상들에 대해 선험적으로 가능한 인식방식을 다루는 체계의 이념이 나왔다. 그리고 칸트는 초월철학의 이념을 위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인 사고의 능력인 지성을 따라야 함을 증명하는 것, 혹은 지성이 대상 인식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권리를 보증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초월적 연역을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다. 특히 『순수이성비판』의 B판에서의 순수 지성개념들에 대한 연역은 통각의 종합·통일 능력에 대한 주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이로써 인식 주관의 능력으로부터 대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대전환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말년의 칸트는 그 자신이 독단의 선잠에 깨어난 이래 처음으로 수행했던 이 전환으로의 정당화의 마지막 단계를 다시 한 번,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시도했다. 『순수이성비판』 B판에서의 초월적 연역의 마지막 단계는 특수한 표상의 도움으로 진행

되었다. 즉, 칸트는 한편으로는 지성의 활동에 의존하는 표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의 감각적인 표상들이 그것에 의존하는, 감성의 순수한 형식 표상을 통해 연역을 끝맺었다. 그러나 시공간에 대한 칸트의 이론은 이미 당대에서부터 여러 오해를 받았고,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MAN*에서 칸트가 이야기하듯,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공간이라고 마주치는 것들은 결국 감각내용들로 가득 찬 하나의 질료적인 객관·대상으로 보일 때가 있다. 반면, 어떠한 감각내용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공간은 상상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즉, 주관은 한편으론 순수한 공간을, 다른 한편으론 경험적인 공간을 대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판기의 칸트에게서 두 공간 사이의 관계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칸트는 이제 유작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결국 경험에서 직접 마주치는 외감의 표상들은 물질적인 공간 위에서 주어진다. 그렇다면 질료적인 것들이 모두 비어있는 순수한 공간은 그 자체로는 경험에 대해 공허한 관념이 아닌가? 일단 이러한 의심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 우리는 순수 지성개념의 연역에 앞서 직면했던 문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에는 인식 주관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과 그 개념들로부터 주관이 정립한 표상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항상 물질 혹은 질료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의 객관처럼 보이는 표상이 있다. 과연 주관은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저 객관처럼 보이는 표상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가? 혹은 경험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순수한 공간에서처럼 그것이 주관의 인식능력에 의존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러나 후험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처럼 보이는 표상에 대해 주관의 인식능력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당초의 과제였다. 달리 말해, 우리는 연역을 끝맺어야 할 단계에서 연역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물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살펴본 유작에서의 해결책은 비판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성의 비약, 변증적인 환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지성의 개념들과 관계 맺는 이성 무조건자들에 대한 초험적 개념을 고안

해내고, 이내 그 개념들을 실재화하고 실체화함으로써 객관에 대한 환상을 통해 현상계로부터 예지계로 넘어가려고 한다. 즉, 이성인 자신의 관념들을 객관으로 만들면서 그 본성상 정당하게 넘을 수 없는 심연을 뛰어넘으려고 한다. 그리고 칸트는 유작에서 이 이성의 힘을 빌려 그가 다시 마주친 주관의 능력과 객관 사이의 심연을 건너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본 논문에서 그려 보았던 말년의 칸트는 이성이 경험의 집합적 통일성, 절대적 총체성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질료·객관을 이용해 두 공간 사이의 간극을 닫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사변이성의 능력이 현상들에 대한 지성의 합법칙적 연결의 배경이 된다.

물론, 본 논문에서 그려본 말년의 칸트의 사고실험들은 어디까지나 에테르의 현존 증명의 배경에 대한 추적을 통해 주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유작에서의 칸트의 새로운 관점들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여줄 순 없는 것이었다. 예컨대, 사변이성에 관한 칸트의 변화한 관점이 눈에 띄는 초월철학 자체에 대한 재정식화 시도들은 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유작에서의 순수 이성 그 자체에 대한 칸트의 관점에 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신과 인격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유작에서의 윤리적·신학적 논의들, 예컨대 7번째 합본에서 다루어지는 실천적 자기정립이론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글쓰이는 본 논문에서 이런 작업들까지 수행하진 않았고,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본 논문은 칸트가 ‘이행’의 과제로 내세웠던 것, 즉, 규제적 이면서도 구성적인 실험적 원리를 요구했던 것의 배경 역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작의 배경으로 『판단력비판』을 놓을 수 있는지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답을 주지 않았고, 그렇기에 유작에서 보이는 칸트의 기묘한 주장들, 즉 힘의 체계가 목적 개념을 포함한다는 주장(*Op.*21:184)이나 이행의 문제에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구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Op.*21:186)에 대한 해석 역시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본 논문이 남겨둔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논의들이 유작에서의 칸트가 에테르의 현존 증명이라는 사고 실험

을 진행한 까닭 혹은 배경들 중 일부를 보여줄 수 있었길 희망한다. 물론, 나는 말년의 칸트가 유작에서의 시도를 통해 초월철학의 체계의 일부를 대체할 진지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칸트는 명백히 비판기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칸트의 이런 유작에서의 모습들이 여러 해석자들이 말년의 칸트와 그의 유작에 대해 다소 가혹해 보이기까지 하는 평가를 내리게 만드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후대인들의 평가들을 논평하려고 하지 않았고, 유작에서의 논의들을 평가하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칸트가 생애의 마지막 나날들에서 비판기의 첫 작품의 문제의식들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길 희망한다. 한 명의 철학자는 결국 그를 위대한 지성으로 우리들이 기억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갔고, 그 가운데에서 영면에 들었던 셈이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끝마칠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칸트의 저작에 대한 번역서들

Förster Eckart (Ed.), *Opus postum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Friedman Michael (Ed.), *Metaphysical Foundations of Natur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2.

_____, 『순수이성비판』 1·2, 아카넷, 2006.

_____, 『판단력비판』, 아카넷, 2009.

_____, 『형이상학 서설』, 아카넷, 2012.

◆ 단행본

Förster Eckart, *Kant's Final Synthesis - An Essay on the Opus Postumu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Friedman Michael, *Kant and the Exact Scienc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Mathieu Vittorio, *Kants Opus postumum*, Gerd Held(Ed.), Vittorio Klostermann, 1989.

Werkmeister W.H., *Kant: The Architectonic and Development of His Philosophy*, Open Court, 1980.

김정주, 『칸트의 인식론』, 철학과현실사, 2001.

백종현, 『시대와의 대화: 칸트와 헤겔의 철학』, 아카넷, 2010.

_____, 『존재와 진리: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 철학과현실사, 2008.

이신철 역, 『칸트사전』, 사카베 메구미·아리후쿠 고가쿠 편집, 도서출판b, 2009.

◆ 논문

Tuschling Burkhard, “Apperception and Ether: On the Idea of a Transcendental Deduction of Matter in Kant's Opus Postumum”, *Kant's Transcendental Deductions -The Three Critiques and the Opus Postumum*, Eckart Förster(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Förster Eckart, “Kant's Selbstsetzunglehre”, *Kant's Transcendental Deductions -The Three Critiques and the Opus Postumum*, Eckart Förster(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김재호, 「칸트 『유작』(Opus postumum)에 대한 이해와 오해 -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들의 편집 역사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75권, 2006.

_____, 「에테르(Äther) 현존(Existenz)에 관한 선험적 증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칸트 『유작』(Opus postumum) '이행(Übergang 1-14)를 중심으로」, 『칸트연구』 제32권, 2013.

임상진, 「칸트의 『최후유고』에 나타난 경험의 가능성 개념」, 『철학사상』 제35권, 2010.

최소인, 「칸트 『유작』에 나타난 절대 관념론의 맹아」, 『해겔연구』 제8권, 1998.

◆ URL

Rohlf Michael, “Immanuel Kan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4 Edition), Edward N.Zalta(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4/entries/kant/>>.

